

正西津 정서진
해넘이축제
2012 Seogu Haeneomi Festival

12월 31일(월) 16:00 ~ 20:30

정서진 아라빛섬 수변무대

- 식전공연
- 해넘이 세레모니(풍등날리기)
- 노을중 퍼포먼스
- 축하공연(인기가수 출연)
- 체험부스 운영
- 불꽃축제 등

주최 · 인천광역시 서구 주관 · (주)문화방송

오시는길_ 경인아라뱃길 아라인천여객터미널(네비검색어 경인항)
교통안내_ 시내버스: 77-1번, 서들버스: 검암역→정서진, 공항철도이용 시 서울역에서 28분 소요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2 12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2년 12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u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자유사진가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 · 안영우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 인쇄 성광디자인(주) T. 032.881.9441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T.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6 연말 특집 / 정서진 해넘이 코스 정서진에서 보내는, 2012년의 마지막

하늘 높이 뜨겁게 빛나는 해보다 가까이 고운 빛으로 사그라지는 노을이 더 아름답다. 한 해의 끝과 시작에서 맞이하는 빛이라면 더 그렇다. 2012년 마지막 날, 노을빛 물든 정서진에서 보내는 잊지 못할 하루.



06

14 Enjoy Incheon / '차이나' 없는 차이나타운 명소 '춘장' 냄새 비껴간 차이나타운, 그곳

'한국 속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 춘장 냄새와 차(茶)향이 뒤섞인 이 거리에서 고집스럽게 중국색이 버티는 곳들이 있다. '차이나타운에 짜장면집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그건, 차이나타운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14

52 그곳, 인천 / 우각로 문화의 시계바늘이 돈다

거친 숨 몰아쉬며 언덕을 오르내리던 송의동 109번지 쇠뿔고개(우각로) 시계가 언제부턴가 재개발 소문에 그대로 멈춰 버렸다. 흑백 사진첩이 되어 추억을 담고 있던 이곳이 요즘 문화의 시계바늘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28



52

Contents

04 **Communication** '대한서림, 내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 외

06 **연말 특집** 정서진 해넘이 코스

10 **함께하는 인천** 따뜻한 겨울나기

14 **Enjoy Incheon** '차이나' 없는 차이나타운 명소

20 **GCF 유치** '비하인드 스토리'

22 **Vision Incheon** 인천 투자유치 성과

26 **2012 아듀!** 시정 리뷰

28 **Culture News** '한·요르단 수교 50주년 기념 사진전' 외

32 **아름다운 사람** 석바위 시장 '삼거리 족석구이 김' 운영육 사장

34 **Civic News** 'GCF 녹색바람, 이제 시작이다' 외

38 **Council News**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외

40 **Infobox** "2013년 지역공동훈련' 국비 무료 훈련생 모집' 외

46 **이달의 서평**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외

47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48 **건강칼럼** 어린이 시력검사와 약시

49 **인천사는 이야기** '싸우며 건설하자' 외

50 **굿모닝인천** 2012년 과월호 목차

52 **그곳, 인천** 우각로

58 **모닝커피 한잔** 흥성식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59 **인천풍경 플러스** "오늘도 적자"



Cover Story

매일 뜨고 지기에, 마음으로 해를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 맞이하는 자는 해는 다릅니다. 정서진에서 그 빛을 보며 더 밝게 빛날 내일을 기다립니다.

정서진 · 사진 김성환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 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태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사진 더 보기 기능은 태블릿 PC에서만 가능)



인천과 통(通)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대한서림, 내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

인천사람에게 서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대한서림'이 1, 2층을 뺀 집으로 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억의 한 귀퉁이가 잘려나간 기분입니다. 그나마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맞서 곳곳이 버티고 있는 애관극장이 있어 위안이 됩니다. 추억의 장소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대한서림에서 책을 읽으며 옛 시절로 돌아가렵니다.
_ **한은정** 남구 용현5동

한 해의 끝, 이웃에게 관심을

'전국체전, 이제 인천이다'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내년에는 내 고향 인천에서 대회를 연다니 매우 반갑습니다. 기회가 되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힘차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연말을 맞아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세요.
_ **이양후** 경기도 김포시

한국적이고 소박한 정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살가운 정을 간직한 인천의 게스트하우스에 관한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한국적이고 소박한 정서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게다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니 많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_ **유재범** 서울 관악구

인천의 비상, 이제 시작입니다

<굿모닝인천>를 읽다가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글을 띄웁니다. 인천이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확정됐다는 이야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쉽 없이 달려 온 인천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천'이 언젠가 큰일을 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 중심으로 도약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_ **조영민** 경기도 의정부시

인천의 눈부신 행보에 박수를

<굿모닝인천>을 통해 내 고향 인천 소식을 받아보는 것도 즐거운데, 11월호를 통해 인천이 GCF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네요. 이와 함께 송도컨벤시아 2단계 내년 착공, 일본 투자기업 송도에 연구시설 착공, 7호선 인천 연장선 운행 등 반가운 소식들이 많네요. 밝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눈부신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_ **김순만** 경기도 의정부시

인정 나누는 게스트하우스

인천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게스트하우스가 있는지 몰랐는데, <굿모닝 인천>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저렴한 숙박요금, 옛 가옥에 대한 문화체험 무엇보다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게스트하우스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_ **소은미** 계양구 작전

'책방'이 '책방'이 돼 아쉬워요

<굿모닝인천>의 여운 있는 마지막 페이지, 인천풍경 플러스 '책방, 미안해요'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동인천 주변이 기억에서 멀어져가고, 책보다 인터넷이 더 주목받는 요즘, 대한서림마저 쇠퇴의 기로에 서 있으니 참으로 아쉽습니다. 오랜만에 추억을 더듬어 동인천역 주변을 찾아봐야겠습니다.
_ **박종형** 남동구 구월말로

인천, 세계에 녹색바람 일으키길

인천이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네요.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축하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대표 저탄소 녹색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세계에 녹색바람을 뽐낼 일일 키길 바랍니다. 저도 일회용품 덜 쓰고 쓰레기를 줄이면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동참할게요. <굿모닝인천> 독자여러분, 우리 함께 해요.
_ **김정윤** 청주시 상당구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혹시 인천에도 창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네요.

우리시에서는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교육 및 공간, 사업자금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JST(제물포스마트타운) 본부(250-2180)에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Bulloger 인천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GCF 사무국을 유치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데, 센트럴파크에서 자전거대여를 할 수 없네요?

센트럴파크 내 매장은 임대매장으로 현재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해돋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인용 자전거 1시간 이용 시 요금은 5천입니다.

@Bulloger 30대 미용사로 지체장애인입니다. 내년 창업을 생각하고 장애인창업대출을 알아봤는데, 일단사업을 시작한 후에 받을 수 있다네요. 막막합니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는 신용 및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금리로 대출하는 햇살론 보증부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생업자금 용도로 국민은행에서 가구당 1천2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민종합금융지원센터(440-4228)로 문의하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심성택(당시 만 55세 3개월, 남)
발생일자 2011년 5월 20일(금)
발생장소 남동구 간석동
신체특징 흰색 옷, 짙은 색 바지, 안경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음, 정신장애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정서진에서 보내는, 2012년의 마지막

'낮에는 너무 높고 눈부셔 볼 수 없던 당신을 / 이제야 내 눈높이로 바라 볼 수가 있습니다. / 너무 가까워 노을빛이 내 심장의 피가 됩니다.' (이어령 '정서진 노을 종소리' 중에서) 하늘 높이 뜨겁게 빛나는 해보다 가까이 고운 빛으로 사그라지는 노을이 더 아름답다. 한 해의 끝과 시작에서 맞이하는 빛이라면 더 그렇다. 2012년 마지막 날, 노을빛 물든 정서진에서 보내는 잊지 못할 하루.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추천, 정서진 해넘이 일일 코스

am 10:00~

정서진에서, 바다와 인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보러, 정서진으로 간다. 정서진은 광화문의 정서방향인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인근. 동쪽에 정동진이 있다면 서쪽에는 정서진이 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멍멍한 가슴을 어루만지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선다. 저기, 푸른 물결이 보인다. 겨울 한가운데 이른 아침 바람이 차다. 그래서 찌들었던 마음이 맑고 투명해진다.



am 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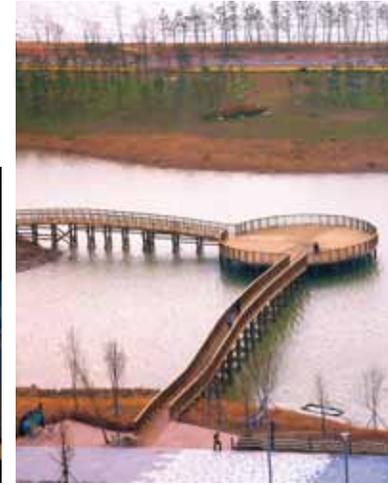
마음까지 데우는, 모닝커피 한잔

한겨울, 바다 곁을 거닐다보니 어느새 뺨이 홍옥처럼 빨갱게 물든다. 언 손을 호호 불며 온기 찾아 터미널 안으로 들어간다. 달달한 커피 향이 피어나는 아담한 커피숍이 반갑다. 햇살이 쏟아지는 창 아래서 마시는 모닝커피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운다. 커피와 토스트 세트가 3천원 대로 가볍게 브런치를 즐겨도 좋다. 한 끼 든든히 채우고 싶다면 옆 한식당의 문을 두드려라. 카페빈 567-8550, 씨씨 그린 푸드 562-4588

인천의 노을, 가슴에 지다

서해 품은 인천은 일몰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곳이 많다. 노을을 바라보며, 한 해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희망 찬 내일을 맞자.

을왕리 바닷가에서 하늘을 본다. 해가 바다를 어루만지다 세상을 붉게 만들어버린다. 백사장은 적(赤)사장이 되었고, 해변을 메운 갯바위는 햇살이 더해져 세상에 없을 조각품이 되었다. 장화리 노을도 유난히 붉기로 유명하다. 해가 노을로 부서져 내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음도 붉게 붉게 물들어버린다. 고리산 서쪽 적석사의 낙조대에 올라도 그림 같은 석양이 펼쳐진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더니 어느 새 바다를 붉게 만들어버린다. 석모도에서 바라보는 노을도 눈이 부시어 어렵하다. 그 섬의 보문사 마애석불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 주문도, 소승도, 대승도가 바다 사이로 신비로이 모습을 감춘다. 월미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시야가 넓어서 좋다. 노을을 배경삼아 잠을 청하는 선박들의 모습이 한가롭게 다가온다.



am 11:00~

바다 위 달리듯, 두 바퀴로 싱싱

동장군의 기승 쫓 이겨낼 수 있다면, 두 바퀴로 경인아라뱃길 따라 겨울 한가운 데를 싱싱 달려보자. 정서진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출발점. 아라뱃길을 따라 한 강에서 낙동강까지 길이 이어진다. 칼바람이 불어도 바퀴는 잘 굴러간다. 찬 공기 뚫고 세상을 파사롭게 어루만지는 햇살이 새삼 고맙다. 자전거는 터미널 입구에 있는 대여소에서 3천원을 내면 1시간 동안 탈 수 있다. 단 인천터미널 대여소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10인 이상 단체고객에 한해 운영하니 참고할 것. 자전거 대여 999-7814, 5, 국토종주 자전거길 1577-4357

am 12:30~

전망 좋은 카페에서 여유로운 한때

어느새 고른 한낮. 찬 기운에 뽀뽀 언 몸을 녹이러 '아라타워'로 향한다. 전망카페인 '카페아라'는 24층에 있다.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 싶 없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야속하다. 하지만 카페 안에 들어서는 순간,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진다. 따사로운 감촉의 나무 바닥이 깔린 여유로운 공간. 무엇보다 하늘과 바다가 빛어낸 작품이 눈앞에 와이드스크린으로 펼쳐져 황홀하다. 감미로운 커피와 이탈리아 음식을 즐기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운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 연말에 전망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카페 아라 564-4501

pm 2:00~

전망대에 서면, 세상이 내 품에~

카페에서 한 층 내려오면 아라타워 전망대.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 본다. 하늘에서 본 아라인천여객터미널의 위용이 새롭게 다가온다. 바닷물이 들고 빠지면서 난 물길의 흔적이 갯벌 위에 멋진 작품을 그려놓았다. 영종대교가 그 위에 긴 선을 그리며 묵묵히 서있다. 저 멀리 영종도, 신도, 세어도... 크고 작은 섬들이 물 위에 잠기듯 신비로이 떠 있다. 한편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이 한 폭의 그림을 오래도록 선명히 가슴에 새길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이며, 이용료는 무료. 아라종합안내센터 1899-3650

pm 2:30~

선장이 되어, 아라뱃길을 달리다

1층에는 아라뱃길 홍보관 '아라리움'이 있다. 홍보관 안에는 고려시대부터 품어 온 아라뱃길의 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시뮬레이션 체험으로 선장이 되어 뱃길을 신나게 달려 본다. 이어 영상관에서 아라뱃길의 꿈과 미래를 담은 영상물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른다. 홍보관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아라종합안내센터 1899-3650



pm 3:00~

반짝이는 아라빛섬에서 산책

'황혼 무렵, 지는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는 뜻의 '아라빛섬'. 이 섬에는 오솔길이 있다. 그 길 따라 걸으면 햇빛 반짝이는 물결이 반긴다. 그 누구를 기다리듯, 하늘 높이 목을 빼고 서 있는 솟대도 보인다. 섬에는 작은 나무도 있다. 배 타고 즐기기 좋은 오후,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노를 저어본다. 전기보트는 1만5천원, 수상자전거는 8천원을 내면 25분 탈 수 있다.

pm 4:00~7:30

해님이 축제에서 내일을 맞다

축제시간이 다가오자, 서쪽 끝 바다가 사람들로 북적인다. 해가 기울면서 기운이 뚝 떨어졌지만 노을을 기다리는 마음이 추위를 잊게한다. 화려한 공연과 후끈한 겨울 먹거리도 체감온도를 높인다. 어느덧 시계는 5시 24분을 가리키고, 일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제 모습보다 더 고운 노을을 홀리던 해가 부드러운 손길로 종을 두드린다. 노을종의 4중주가 빛과 어우러져 세상에 울려 퍼진다. 노을벽에 소망을 담으며, 내일도 힘내어 살아가리라 다짐해 본다. 정서진 그곳에서 만난 석양은, 지는 해가 아닌 더 찬란히 빛날 내일의 태양이었다.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560-5930



어려운 이웃에 '희망사다리'를 놓다

다시 겨울이 돌아왔다. 겨울은 가진 게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시민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시정의 일환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작은 나눔과 손길은 이들에게 큰 희망이고 행복이다. 경제불황으로 각자가 다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우리시의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희망의 온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글. 이용남_복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소외된 이웃의 '희망' 쪽방상담소

아카사키촌으로 널리 알려진 동구 만석동, 송림동을 비롯한 계양구 쪽방촌에는 355세대의 쪽방거주자가 산다. 대부분 사업이 부도나거나 이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다. 열기설기 지은 2~3평의 좁은 방이 이들의 거주공간이다. 만석동에 위치한 쪽방상담소는 쪽방거주자들에게 의료, 생필품, 연탄, 일자리 등을 지원하며 자활을 돕는다. 이곳 쪽방엔 150세대가 거주한다. 한 달에 한 번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의료봉사를 나와 주민들의 건강을 챙긴다. 상담소는 진짜 일거리가 없어 쪽방 여인숙에서 나가야하는 쪽방거주자에게 3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과 함께 열악한 쪽방을 훈훈하게 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한다. 황소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얇은 유리를 바람막이가 되는 두꺼운 유리로 바꿔준다. 추운겨울이면 두꺼운 솜이불을 온종일 꺼내고 지내야 했던 쪽방할머니는 덕분에 따뜻히 지낼 수 있다고 기뻐한다. 상담소는 이곳 사람들의 자활을 최우선 목표로 둔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연 2회 쪽방거주자들을 모시고 여가활동을 벌인다. 쪽방상담소 박종숙 소장은 "겨울철 어려운분들을 위한 후원이 주로 12월에만 반짝하고 마는데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어려운 시민들이 꼭 필요한 것을 후원했으면 한다"고 강조한다. 쪽방상담소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후원금을 내면 기부처리되고,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전화 543-6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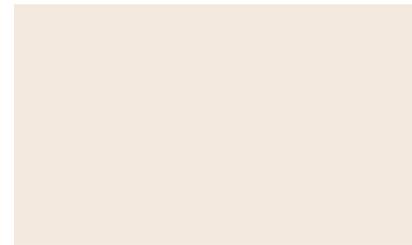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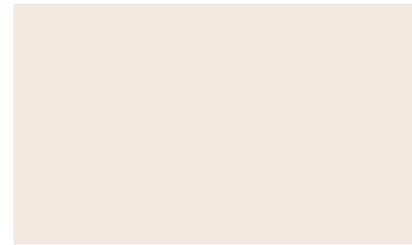




아이들 마음 상처까지 치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상처에 약하다. 남들은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는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 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다.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부모의 공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바깥으로 돈다.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거나 밤거리를 배회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절실한 이유다. 중구 구립월드지역아동센터는 42명의 초중생들이 방과후에 모인다. 아이들은 이곳 선생님들과 학교공부를 하고, 인근 고등학교 언니, 형들에게 수준별 학습을 지도받는다. 또 집에 컴퓨터가 없는 학생은 컴퓨터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으며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배운다. 사교육이 힘든 아이들에게 이곳은 큰 희망과 꿈터다.

실제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중학 3학년 김미경(가명) 학생은 이곳에서 온 후 성적이 크게 올랐다. 가정환경에 대한 불만, 사춘기 방황으로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고등학교 언니들로부터 수준별 학습을 받은 후 성적이 크게 올라 최근 학교장 추천으로 자율형사립고를 지원했다. 구립월드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동을 도울 자원봉사자와 후원금을 모집한다. 아이들의 학습을 책임감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전화** 773-0984



'자립의 길' 열어드립니다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광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통해 자립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자활센터에는 현재 3천여 명이 활동한다. 취업, 교육훈련, 자활사업 지원이 이뤄진다. 참여자 대부분이 기초수급권자이고, 연령층도 높은 편이다. 주로 청소, 간병, 집수리, 박스포장, 산모도우미, 노인돌보기 등의 일이다.

광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복지와 고용을 함께 해결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을 펼치고 있다. 1대1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노부모를 돌보거나 양육으로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 대상자에게는 연간 실비 60만원을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해 탈수급에 성공할 경우 의료비와 학자금은 최대 3년간 특례를 인정, 그대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추진하는 탈수급 관련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게 일자리도 지원한다. 생계비 지원차원으로 일일 8시간 주 5일간, 집수리, 청소, 택배업무에 참여한다. 자활센터는 한부모가족, 주거취약계층에게 집만들어 주기 사업도 벌였다. 집없는 사람을 위해 빈집이나 새집을 수리해, 100만원 보증금을 내주고 월세를 지원한다. **전화** 437-4051

나눔이 인천을 하나로 만든다

희망날개 프로젝트 캠페인은 빈곤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자립을 지원한다. 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이 캠페인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미래도시 인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년 1월 31일까지 소외계층 아동지원 후원금을 모은다. 후원금액은 5천원부터. 어린이재단 캠페인 홈페이지(childfund-incheon.or.kr) 가입 후 기부할 수 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시민, 기업체 등의 후원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2103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기간은 11월 26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로 1통화당 2천원씩 기부된다. 후원계좌로 직접기부 할 수도 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448757, 국민 208-01-0505-298, 농협 147-01-182301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취약계층 지원활동인 '희망풍차' 대상 1천세대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한다. 월 2만5천원 한도 내에서 희망풍차 결연세대에 필요한 물건을 사드리고, 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폐렴예방 접종을 한다. 12월에는 사랑의 빵 나눔터를 만들어 3백세대의 취약계층에게 간식빵을 전달,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빵굽이에 참여할 학생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인천연탄은행은 저소득가구 1천4백세대에 연탄을 배달한다. 여기에 필요한 연탄은 45만장. 작년보다 기업들의 기부가 적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전달할 연탄량이 적어질까 걱정이다. 12월부터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식사를 거르는 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점심은 화, 목, 토 3일만하며 예산이 많지 않아 50분 정도 식사만 제공되기에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연탄은행 후원 문의 011-443-9261





'춘장' 냄새 비껴간 차이나타운, 그곳

중구 북성동 일대. 황금빛 용이 금방이라도 승천할 듯한 붉은 기둥 그 사이 빛나는 흉등. 이곳은 영락없는 '한국 속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이다. 하지만 춘장 냄새와 차(茶)향이 뒤섞인 이 거리에서 고집스럽게 중국색 없이 버티는 곳이 있다. 최근에 차이나타운답지 않은 테마로 과감히 문을 연 곳도 있다. '차이나타운에 짜장면집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그건, 차이나타운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안영우_자유사진가



세탁소 '현대크리닝' 50년간 삼대를 이어 온 손길

한자로 어지럽게 쓰여진 간판들 사이, 한글로 반듯하게 '현대 크리닝'이라고 새겨진 이름이 낯설다. 외관은 요즘 구미에 맞춰 리모델링하였는데 내부는 천장이 높은 옛 건물의 형태 그대로다.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한 120여 년 쯤 된 건물이에요. 시아버지 때부터 이 자리에서 세탁업을 한 지 50년이 되었어요. 지금은 며느리와 함께 가게를 돌보고 있어요.”

세탁소 주인 박민자(57)씨는 이야기 하는 도중에도 다리미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주인장의 아무진 손길에 낡은 옷들이 깨끗하고 반듯한 새 옷으로 다시 태어난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자동세탁 기계인 인체 프레스를 쉴 새 없이 돌려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이 3분의 1로 줄어 기계를 쓸 필요가 없어 세탁물을 일일이 손으로 다 다린다.

10여 년 전 만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때 만해도 동네에 여인숙과 술집이 밀집해 있었고, 뺏사람들이 양말이며 속옷까지 한 짐 들고 와 정신없이 쏟아내곤 했다. 하지만 중국요리집이 하나둘 생기고 동네 사람들마저 기업형 세탁소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당시 대여섯 군데 있던 세탁소 가운데 이곳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최근에도 집세를 이기지 못해 주변 세탁소 몇 곳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우리 건물이니 장사가 안 되도 버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삼대가 긴 세월 기술 쌓아 온 손길이야말로, 이 세탁소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라. 이곳은 그냥 세탁소가 아니라, 지나 온 날과 오늘이 켜켜이 쌓여 흐르는 차이나타운 역사의 산증인이었다.





개성정육점 세상없어도, 이 쇠잔한 내 자리 지킬 것

차이나타운 짜장면거리, 현대식으로 번듯하게 지은 꼴타래집과 화덕만두집 사이에 천덕꾸러기처럼 긴 남루한 개성정육점. 주말이면 TV에도 나왔다는 유명한 먹거리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바글바글해도 정육점에는 눈길 한번 닿지 않고 스쳐지나간다.

김병길 할아버지(83)는 아내를 여의고 1990년에 북성동으로 왔다. 그리고 '가짜' 공화춘 자리에서 정육점을 하다 2003년에 이 자리에 터를 잡았다. 고향은 개성이 아닌 평안남도의 첩첩산중 맹산, 전 주인이 쓰던 간판을 그대로 달아 지금의 이름이 됐다. 때문에 동향인줄 알고 찾아오는 사람도 종종 있다며 할아버지는 열게 미소를 짓는다.

6·25 때 남쪽으로 내려 온 할아버지는 제대 후 처음 연탄배달을 했다. 그러다 소 마차를 끌고 잘 나갈 때는 소 장사를 하고, 그제 인연이 되어 정육점을 하기에 이르렀다. 장사가 잘 될 때는 한 사람이 고기를 몇 근씩 사가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생기고 주변에 중국요리집이 하나둘 늘면서, 지금은 옆에 있는 화덕만두집에 고기를 대주며 겨우 가게를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목숨을 빼앗아 갈 뻔한 전쟁도, 반신불수로 만들어 버린 중풍도 이겨 낸 할아버지다.

“여기저기서 짜장면집 열게 어서 나가라고들 해. 하지만 어렵잖어. 나는 숨 붙어 있는 날까지 여기서 장사를 할 거야.” 목소리는 호기로운데 눈빛은 외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빛이 아직 머물러 마음을 어지럽힌다.

인천근대박물관 시계바늘을 근대로 돌리다

화교 중산학교 정문 앞, 2층으로 된 작은 박물관의 문을 살포시 열고 들어서면 시간은 근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한말 영국에서 인천영사관에 보낸 장식장, 19세기 말에 쓰던 벽걸이 자석식 전화기와 측음기... 모두 최용규 관장(64)이 40여 년간 소중히 그러모은 근대자료들이다. 이 곳은 박물관이기라기보다 작은 보물창고 같다. 할아버지에게 옛이야기를 들듯 최 관장으로부터 역사이야기를 듣고, 손으로 긴 시간을 쓰다듬고 헤아릴 수 있어 정겹다. 관람료는 어른 2천원, 어린이는 1천원이다. 문의 764-1988, 019-429-1988



眞골동품점 자욱한 먼지 속, 빛나는 이야기

짜장면거리 언덕 위 의선당 맞은편에는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골동품점이 있다. 한자가 쓰여진 간판, 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중국자기들. 하지만 주인장은 토종 한국인이다. 권혁재(68) 할아버지는 경북 안동에서 나 1975년에 북성동에 터를 잡고 8년 전 골동품점을 이어받았다. 가게 안을 빼곡히 채운 중국물건 가운데 조선시대 자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새긴 동판 등 한국물건들이 눈에 띈다. 할아버지가 인사동에서 발품 팔며 들어온 것이다. 나가는 길, 행운을 전하듯 따뜻한 손이 오래된 동전 두 개를 건네 준다. 뜻밖의 선물에 입가에 빙그레 미소가 번진다. 문의 772-9654





낙타사막 골목과 골목 사이, 마음 적시는 오아시스

삼국지벽화거리 들머리에서 청일조계지 경계계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예쁜 카페 하나가 있다. 좁다란 골목과 골목 사이에서 만난 뜻밖의 오아시스. 손글씨로 '낙타사막'이라고 새긴 나무간판, 계절을 봄으로 착각한 듯 빨강노랑으로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어서가자, 발걸음을 재촉한다.

카페 안 공기는 훈훈하다. 주인장과 얼굴을 마주볼 만큼 가까운 거리, 몇 안 되는 좌석. 곳곳에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과 관련 자료들이 아끼자기하게 놓여있다. 다락방 같은 2층에 오르면 또 다른 세상이다. 파사로운 감축의 나무바닥에 색색의 좌식 테이블이 놓여 있어 아늑하다. 햇살 내리는 창가에서 차 한잔 마시며 천천히 숨을 고른다.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워도 좋겠다.

김홍희(43), 박미나(38) 부부는 2년 동안 정성스러운 손길로 세월 목은 빈집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조계지 계단에는 세 개의 좁은 골목이 나 있어요. 원주민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 골목의 오래된 집들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들은 이미 계단 위쪽에 갤러리아 작가들의 작업공간인 '쉬필라움'을 만든 바 있다. 낙타사막은 이 부근에 예술의 향기를 질게 드리울 그 아름다운 도전의 연장이다.

문의 765-9516



밴댕이 포장마차 곱씹을수록 피어나는 옛 추억

짜장면박물관에서 언덕 위로 조금만 오르면 아담한 밴댕이 포장마차가 나온다. 영종도가 고향인 김영자(58) 할머니는 30년 전에 북성동으로 시집와 참 오래도 이곳을 지켰다. 포장마차를 연 건 4년 전, 지금은 대여섯 곳의 밴댕이집이 있지만 전성기 때는 포차로 거리를 이룰 정도였다. 지금 이곳을 찾는 이는 옛 추억을 그리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뿐. 그래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할머니에게 그 비결을 물으니, '간을 잘 맞추는 것'밖에 없단다. 하지만 그 별것 아닌 밴댕이는 입 안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린다. 여기에 술 한잔 곁들이니 세상고민이 무엇이나 싹다. 문의 763-3592



화교 중산학교 앞 구멍가게에 공갈빵보다 고추장 떡꼬치

이곳은 화교 중산학교 앞의 유일한 구멍가게이자, 문방구 그리고 분식집이다. 심상미(42)씨는 화교와 결혼하면서 8년 전, 가게를 운영하던 할머니로부터 이 가게를 인수받았다. 때마침 수업을 마친 아이들로 가게 안이 왁자지껄하다. 메뉴라 봐야 떡꼬치, 감자튀김, 컵라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간식거리다. "아줌마 외상이요~", "그래, 그래 알았어." 단돈 사백원하는 떡꼬치에도 외상을 준다. 딸이 이 학교에 다녀 모두 자식 같다는, 주인장의 마음씨도 살갑다.



인천 화장품으로, 중국을 메이크업하다

휴띠끄

'차이나타운에 뷰티숍이 문을 열었다고? 짜장면집이 아니냐?'

춘장 냄새와 차(茶)향이 뒤섞인 차이나타운에 화장품 향기가 피어나 여성(女心)을 유혹하고 있다. 뷰티숍 '휴띠끄(Huetique)'가 지난달 29일 한중문화관 뒤 중국요리집 태림봉 맞은편에 문을 열었다. 휴띠끄는 쉬면서 즐긴다는 의미다.

인천에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20여 개의 뷰티기업이 모여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제품을 만들어 브랜드기업에 납품하는 OEM·ODM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리사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기업은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휴띠끄의 문을 열었다.

매장은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인천지역 15개 제조업체가 만든 화장품과 미용제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뷰티체험관을 운영해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등 나만을 위한 작은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주요 타깃은 차이나타운을 찾는 관광객들 특히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연 40만8천여 명에 이르는 중국인 관광객이다.

'입술은 꽃처럼 화사하게, 두 뺨은 소녀처럼 발그레하게' 이제, 인천의 화장품이 한국을 넘어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을 메이크업한다. 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260-0219



“송도에 묵는 동안 표심이 바뀌었다고 확신합니다”

“GCF, 인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감격과 감동으로 몰아넣었던 이 한마디 외침의 여운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이제 우리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유치 이후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차분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몇 번을 들어도 지겹지 않은 즐거운 ‘뒷담화’들이 이곳저곳에서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 GCF 이사국 관계자들이 묵었던 송도파크호텔 조학영 총지배인도 유치와 관련된 ‘숨은’ 이야기 한토막을 풀어냈다.

글. 유동현_본지 편집장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송도국제도시는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한 ‘전쟁터’였다. 외교전, 첩보전, 심리전, 홍보전 등 쓸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총동원했다. 심지어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에서 바람을 이용했 듯 우리시는 ‘송도대첩’을 위해 지는 노을까지 활용했다. 유치하면 GCF 사무국으로 사용할 I-Tower 빌딩에서의 투표 전 날 밤 만찬은 주효했다. 경쟁 상대국 임원들조차 창밖의 노을을 보고 “원더풀”, “와우”, “판타스틱” 등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되내었다. 그만큼 우리시의 준비는 모든 게 치밀했고 절박하기도 했다.

그 전쟁터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지만 작게 보면 송도국제도시였다. 일단 홈그라운드 싸움이라 해볼 만했다. 일주일간 투표권을 가진 이사국들은 송도국제도시 내의 호텔들에서 묵었다. 회의는 송도컨벤시아에서 했지만 그들이 먹고 자고 쉬는 곳은 호텔이었다. 호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

송도파크호텔에는 GCF와 관련한 39명의 외국인이 묵었다. 조학영 총지배인은 그들에게 ‘진정한 웰컴’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심했다. 거창한 것을 계획하기에는 시간도, 예산도 부족했다. 그가 생각한 것은 ‘배지’였다. 20만원을 들여 2천개를 만들었다.

“투숙객들이 호텔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룸메이드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모두 가슴에 배지를 달게 했죠. 그리고 그들과 마주치면 무조건 웃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하면 ‘배지 달고 웃으면 끝’이라는 전략이었다. 배지는 인천도시공사에 1천개, 웨라톤호텔 300개, 브릿지호텔 200개 그리고 허버파크호텔에도 100개를 보냈다.

송도파크호텔에는 우리시와 가장 라이벌 관계였던 독일 스탠프 7명이 숙박했다. 10월 15일 월요일 선발대 격으로 미리 도착한 그들은 사나흘 동안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질 않고 서로의 방만 오가며 식사도 룸서비스만을 요청했다. 뭔가 치밀한 작전을 짜는 듯 했다. 그런데 조 총지배인은 그들의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아 뭔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한다.

그들 외에 영국, 페루 등 16개국 관계자들이 속속 그 호텔에 도착했다. 총지배인은 그들을 따듯하게 맞이하는 한편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하고 호텔 18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 송영길 시장이 묵었다. 시장은 독일 스탠프들이 도착한 그날 아예 각종 서



류와 속옷 등을 챙겨들고 그곳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그는 송 시장에게 ‘일일동향’을 보고했다.

15일 밤 투표권을 가진 콜롬비아 대표인 환경부 차관이 904호에 투숙했다. 시장이 총지배인을 호출했다. 다음날 아침식사 자리를 마련해 보라는 ‘긴급지시’가 떨어졌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어서 전화를 하기도 곤란했고 게다가 그 대표는 여성이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남미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고심 끝에 그가 생각했던 것이 ‘편지’였다. 시장의 정중한 뜻을 적어 문 밑에 밀어 넣었다. 다음날 아침, 그 대표와 송 시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유치되는 날까지 밥상 전략은 계속되었다. 송 시장은 하루 세 끼를 각국 대표들과 거의 함께하며 각계각파에 나섰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외국물을 좀 먹었다는 저도 하루에 양식 세끼는 고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유창한 영어와 간단한 그 나라 말을 섞어가며 늘 식탁 분위기를 이끌어갔죠.”

10월 20일 오후 1시, 낭보가 날아왔다. 유치가 확정된 것이다. 모든 직원들은 호텔 로비에 도열해 ‘개선장군’을 맞이했다. 조 총

지배인은 송 시장과 감격스러운 하이파이브를 했다. 시장은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떠나기 전 일행은 그 방에서 간단하게 축하 샴페인을 터트렸다. 시장도 총지배인도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다. 며칠 후 조 총지배인은 송도파크호텔에 묵었던 GCF 관련 외국인 39명에게 일일이 메일을 보냈다. 곧 답장이 돌아왔다. 인천이 불안하고 정돈이 안된 도시인줄 알았는데 너무 세련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호텔의 서비스 좋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송도파크호텔은 GCF 유치 후 바로 680억원에 매각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매각 시도에도 팔리지 않던 ‘골치덩어리’ 호텔이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팔렸다. GCF 유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이번 일이 제 직장 생활 중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돈 따라 사람 오고 사람 따라 비즈니스가 옵니다. 송도 비즈니스는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자신감에 찬 그의 표정에서 몇 년 후 송도파크호텔에 들어서려는 GCF 관련 외국인들과 유쾌하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인천, 새로운 미래가 온다

‘머물지 않는 도시, 하루도 똑같지 않은 도시’ 인천. 올 한 해도 쉽 없이 뛰어왔다. 특히 국내외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도약했다. 민선5기 출범 이래 삼성, LG, 신세계 등 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각종 대형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국제도시다운 면모가 뚜렷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은 ‘확실한 미래, 빛나는 내일’을 향해 힘차게 움직인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Vision 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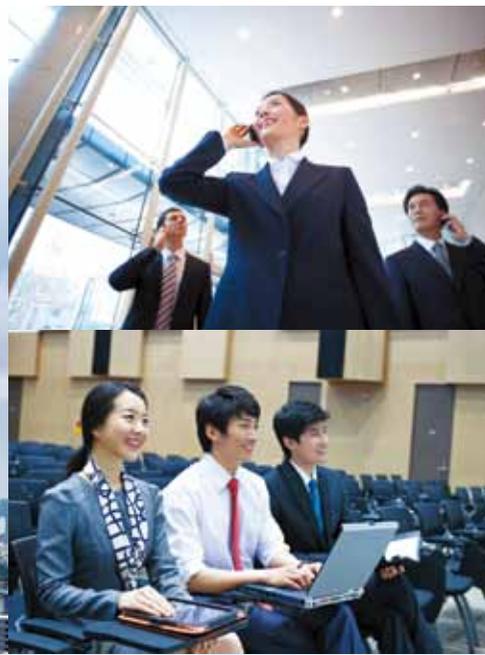
세계가 인천의 가치에 주목

국내외 투자유치가 잇따르면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투자유치는 민선5기 출범 이래 줄곧 활기를 띠고 있다. 민선5기 이후 투자 계약이 17건에 총사업비 2조8천억원을 유치했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사업들이 실 계약체결을 이루면서 유치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국제항,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을 품은 인천은 기업활동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한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만도브로제, 동아제약, 신세계, 하나금융타운 등 수많은 대기업이 인천을 택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도권 규제로 국내 대기업의 입주기회가 막혀, 산업단지에 터를 잡거나 외국기업과 합작해야만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항만배후 지역과 자유무역 지역에서 제조업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인천신항 등 새롭게 조성하는 항만배후 지역에 대기업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저가의 산업용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원도심 투자유치 활발

원도심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미래도 희망차다. 시는 원도심에 대기업의 신규사업과 유망 중견기업의 투자유치를 활발히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LG그룹의 신성장 산업인 전기자동차 부품 개발의 핵심기업 (주)V-ENS의 유치다. 이 기업의 R&D 시설과 시험생산 공장은 오는 2013년 서부산업단지 내에 세워지며 5천800명의 고용창출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신개념의 자동차 테마파크 '모터&뮤지엄'도 조성한다. 한국GM, 중소부품업체, 엠파크 등 기존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 외에 관광 콘텐츠를 성장시켜 자동차 산업도시로 발전한다. 오는 2017년 완공하는 테마파크에는 자동차박물관 및 전시·공연장 등이 들어서며 6천명의 고용창출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도화구역, 루원시티 등 도시재생지역에는 앵커기업을 유치한다. 도화구역에 청운대가 검단신도시에 중앙대가 각각 앵커시설로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에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내 증액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관내 매출액 1천억대 기업과 인천 소재 30대 그룹 계열사, 'World-Class 300' 등을 대상으로 투자수요를 파악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도 봇물

글로벌 경기 침체의 난항 속에서도 지난해 삼성, 롯데, 신세계 등 굴지의 대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선택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국내 1위, 글로벌 기업 삼성의 투자유치다. 삼성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랜트'를 착공했으며, 오는 2017년까지 송도 5공구에 2조1천억원을 들여 바이오시밀러·바이오신약을 생산하는 첨단바이오파크를 조성한다.

동아제약도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시밀러 연구시설을 설립한다. 동아제약은 일본 제약회사인 메이지세이카파마와 공동으로 오는 2013년 송도 5공구에 바이오시밀러 제조와 연구시설을 건립하며, 지난 9월 1단계 시설을 착공했다. 이로써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클러스터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지난 5월 첨단 IT분야 세계 2위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업체인 미국 앰코테크놀로지사와 10억달러의 협약 체결을 맺은 것도 큰 성과다. 앰코테크놀로지는 오는 2019년 송도에 핵심연구개발센터와 최첨단 공장을 조성한다.

또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는 오는 2015년 송도 1·3공구에 복합쇼핑몰을 조성하고, 신세계는 오는 2015년 청라지구에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짓는다. 영종지구에 세계적인 쇼핑몰 '몰오브 코리아'가 들어선다.

최근에는 글로벌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STATS Chip PAC)가 영종지구로 기업 이전을 정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설계와 착공을 모두 내년 중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종하늘도시 내에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Boeing)사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운항훈련센터를 건립하고, 항공기 엔진제작사인 미국 프랫 앤 휘트니(Pratt&Whitney)사와 대한항공사 간의 합작법인인 아이에이티(주)가 항공엔진정비센터를 건립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올해 하나금융이 청라국제도시 입주를 결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환경도 완성되고 있다. 송도글로벌캠퍼스 내에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대학 분교인 한국뉴욕주립대가 지난해 개교했고, 조지메이슨대학교, 유타대학교, 벨기에 겐트대학교도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투자유치 성과

투자자	사업내용	총사업비	고용창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생산시설 건립	21,000억원	550명
LG V-ENS	전기자동차부품 R&D센터, 생산시설	비공개	1,000명
하나금융지주	금융타운	13,000억원	5,600명
롯데	복합쇼핑몰	10,000억원	3,000명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3,000억원	3,000명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센터	12,000억원	1,500명
동아제약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연구시설	2,000억원	550명
대한항공	왕산마리나	1,500억원	800명
이랜드	복합 쇼핑몰	385억원	3,000명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활력 있는 도시, 인천

우리는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맥락에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형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5대 신성장 산업(IT 과 IT 융합분야, 부품과 신소재 산업, 바이오와 의료서비스 산업, 로봇산업, 물류산업)을 집중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단순 제조업에서 R&D, 지식창출, 생산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고밀도의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는 또 국내외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활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기업과 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1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또 도시재생사업구역 상업·업무시설 부지에 고부가 지식서비스산업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비온 뒤 땅 곧듯’ 인천 다시 핀다

2012년 임진년 인천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을 품고 동분서주한 결과 위기를 기회로, 희망으로 바꿨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투자유치도 이뤘다. 특히 10월 20일에는 세계 환경부문의 월드뱅크라 할 수 있는 ‘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 놀라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이제 인천은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이 모여들고, 기업이 찾는 국제도시로 거듭난다. 2012년 인천을 빛낸 주요 정책을 되돌아본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GCF 사무국 인천 유치

10월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CF 2차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등지가 됐다. 내년부터 송도국제도시엔 주재원이 상주하기 시작해 기금이 늘어나면 최종 1천 여명까지 증가한다. GCF사무국 유치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컨벤션, 포럼, 컨퍼런스, 세미나 등 국제회의만 연 120회 이상 열려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도 연 3천8백억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시는 내년 3월 GCF 사무국이 문을 열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기를 기회로, 재정위기 극복

우리시의 재정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검단 신도시 건설 등 굵

직한 사업진행이 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우리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여쓰자는 재정건전화 3대 원칙을 마련했다. 송도 6·8공구와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각해 총 1조4천2백억원을 마련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준공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기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120번 미추홀콜센터, 시민의 귀가 되다

우리시는 작년 12월 1일부터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주는 120미추홀콜센터(120, incheon.go.kr)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120번 미추홀콜센터에서는 교통상담, 생활정보, 사회복지, 시정, 관광, 법률분야 상담을 하고 있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상담도 이뤄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뉴욕주립대 개교

국내 최초로 미국 뉴욕주립대학교가 3월 송도글로벌캠퍼스에 개교했다. 현재 50명의 학생이 기술경영학과 컴퓨터과학분야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내년엔 학부과정을 열어 봄과 가을에 기술경영학과 100명을 모집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대학의 첫 학부과정 설립 사례가 된다.

고화질 HD급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오픈

지난 3월 중구 도원동에 관중과 호흡하며 함께 느끼는 2만3백석 규모의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오픈했다.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 땀, 선수들끼리 부딪치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박진감 넘치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K리그와 인천유나이티드의 미래다. 경기장은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합으로 새로 출범한 공기업

우리시는 2011년 12월 28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인 공기업 통합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를 인천도시공사로, 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를 인천교통공사로 통합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개발기획 단계부터 관광·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게 됐고, 교통공사는 지하철과 버스 교통 운영·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서민금융지원센터 운영

우리시는 지난 6월부터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신고, 소액대출, 부채증명원 발급, 창업·운영자금 대출, 개인회생, 파산제도 안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새 모델 아카사키촌

동구 만석동의 쪽방촌인 아카사키촌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을 100%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도시재생의 모델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는 커뮤니티 공간과 마을 공동빨래방, 공동창고 등 주민편의 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까지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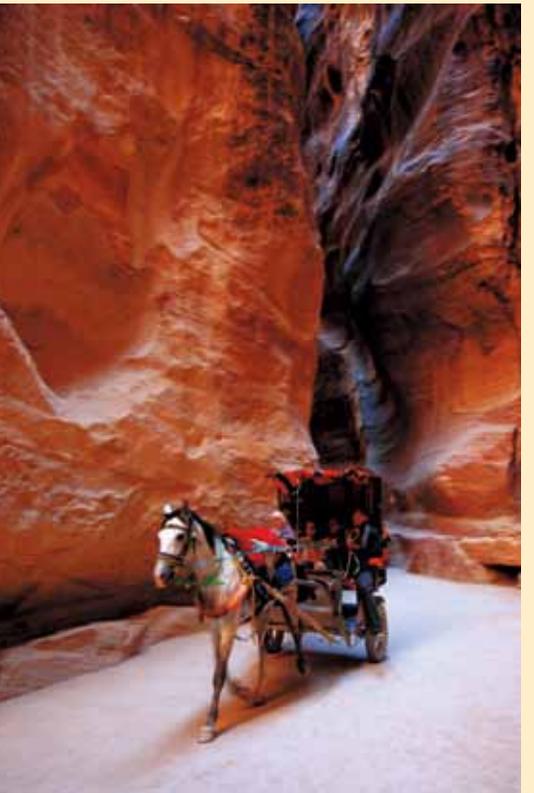
서울지하철 7호선이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지난 10월부터 연장 운행되고 있다. 온수역~부평구청역을 연결하는 10.2km 9개 역과 인천구간 2.37km 3개역이 개통됐다. 7호선 연장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과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강남 등 서울 도심으로 4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졌다.



12월 공연·전시 Calendar

SUN	MON	TUE	WEN	THU	FRI	SAT
<p>2</p> <p>2012 CHRISTMAS CANTATA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30분, 7시30분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국제청소년연합 326-9229</p> <p>인천시립극단 제63회 정기공연 '오델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학생 1만5천원, 일반 2만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p>	<p>3</p> <p>2012 박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1만원 ☎인천음악문화원 429-0248</p> <p>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 5천원, 단체 1만원 ☎811-0550</p>	<p>4</p> <p>아동극 '꿀꿀꿀 대소동'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10시 10분, 11시 20분, 오후 4시 1만원 ☎시립극단 피마세상 010-2898-0014</p> <p>아동극 '배움' 강화문화예회관 소극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 5천원, 단체 1만원 ☎두부기획 02-2654-6854</p>	<p>5</p> <p>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4시 / 전석 2만원 ☎엔터테인먼트 1588-2341</p> <p>전통연희 창작극 '피니 도깨비와 미스터 흑부리'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 7천원 ☎연희컴퍼니 유휴 760-1005</p> <p>ENJOY OPERA BUFFA 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3천원 ☎507-5998</p>	<p>6</p> <p>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 전석 2만원 ☎엔터테인먼트 1588-2341</p> <p>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 5천원, 단체 1만원 ☎811-0550</p>	<p>7</p> <p>뮤지컬'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R석 3만원, STJR 2만원 ☎500-2000</p> <p>달로와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3천원 ☎505-5995</p> <p>타악콘서트 '올림과 공명'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전 9시 30분, 11시 / 무료 ☎430-7832, 551-6602~3</p>	<p>8</p> <p>2012 부활 전국투어 인천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9만9천원, 8만8천원, 7만7천원 ☎더스테이지 070-4069-8337</p> <p>뮤지컬'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3시 7시 / R석 3만원, STJR 2만원 ☎500-2000</p>
<p>9</p> <p>금년새와 함께하는 클래식 판타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 초대 ☎웨이브미디어 02-716-3316</p> <p>인천월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무료초대 ☎인천문화재단 455-7144</p> <p>전통연희 창작극 '피니 도깨비와 미스터 흑부리'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 7천원 ☎연희컴퍼니 유휴 760-1005</p> <p>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바소 앙상블 '해피 바소'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 오후 4시 / 무료 ☎440-6735</p>	<p>10</p> <p>보잉보잉 1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 전석 2만5천원 ☎S컴퍼니 1566-9519</p> <p>보잉보잉 1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 전석 2만5천원 ☎S컴퍼니 1566-9519</p>	<p>11</p> <p>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11일, 12일) 인천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 5천원, 단체 1만원 ☎두부기획 02-2654-6854</p> <p>아동극 '긴급출동 뽀빠뽀빠'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 1만원 ☎교육극당 상상 010-6757-1948</p>	<p>12</p> <p>인천시립합창단 제133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합창단 1588-2341</p> <p>극단 아이터 다문화 가족 뮤지컬 '무지개 학교'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507-5996</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13</p> <p>인천시립합창단 제133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합창단 1588-2341</p> <p>보잉보잉 1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 전석 2만5천원 ☎S컴퍼니 1566-9519</p> <p>'호두까기 인형'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7시 / R석 3만원, S석 2만원 ☎즐거움 녀석들 기획팀 02-322-9690/010-8143-0643</p>	<p>14</p> <p>보잉보잉 1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 전석 2만5천원 ☎S컴퍼니 1566-9519</p> <p>극단 아이터 다문화 가족 뮤지컬 '무지개 학교'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3천원 ☎505-5995</p> <p>'호두까기 인형'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7시 / R석 3만원, S석 2만원 ☎즐거움 녀석들 기획팀 02-322-9690/010-8143-0643</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15</p> <p>2012 리쌍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9시, 11시 1층 9만9천원, 2층 8만8천원 ☎더스테이지 070-4069-8337</p> <p>보잉보잉 1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 전석 2만5천원 ☎S컴퍼니 1566-9519</p> <p>애들트리 맛있는 아가페라 인천화성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오후 4시 /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6시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16</p> <p>2012 리쌍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1층 9만9천원, 2층 8만8천원 ☎더스테이지 070-4069-8337</p> <p>보잉보잉 1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 전석 2만5천원 ☎S컴퍼니 1566-9519</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4시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아동극 '용궁으로 간 토끼'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1시, 3시 / 1만원 ☎시립극단 피마세상 010-2898-0014</p> <p>전통연희 창작극 '피니 도깨비와 미스터 흑부리'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 7천원 ☎연희컴퍼니 유휴 760-1005</p>	<p>17</p> <p>보잉보잉 1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 전석 2만5천원 ☎S컴퍼니 1566-9519</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18</p> <p>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회 정기연주회 (금년새 알리를 노래하다 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전통연희 창작극 '피니 도깨비와 미스터 흑부리'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 7천원 ☎연희컴퍼니 유휴 760-1005</p> <p>아동극 '별별 외로움'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3천원 ☎505-5995</p>	<p>19</p> <p>커피콘서트X(웅산 재즈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전통연희 창작극 '피니 도깨비와 미스터 흑부리'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 7천원 ☎연희컴퍼니 유휴 760-1005</p> <p>오브제가족 '어린왕자 그림이야기' 문학씨어터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 1만원 ☎433-3777</p>	<p>20</p> <p>뮤지컬 호두까기인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전석 1만5천원 ☎한국예술경영협회 811-0550</p> <p>인천예술고등학교 동문음악회 인천화성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오후 6시 / 무료 ☎인천예술고등학교 433-3145</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오브제가족 '어린왕자 그림이야기' 문학씨어터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 1만원 ☎433-3777</p>	<p>21</p> <p>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 1층 R석 7만7천원, 2층 S석 6만6천원 ☎오름기획 1566-6551</p> <p>연극<키사라기 미키짱>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2만 5천원 오후 3시 / 무료 ☎500-2000</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22</p> <p>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1층 R석 7만7천원, 2층 S석 6만6천원 ☎오름기획 1566-6551</p> <p>연극<키사라기 미키짱>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2만 5천원 오후 3시 / 무료 ☎500-2000</p> <p>크리스마스 아르츠 콘서트 'Christmas in NEW YORK' 인천화성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오후 4시 /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p> <p>뮤지컬 '어린이 캣츠'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2만원 ☎도담엔터테인먼트 430-7832, 551-6602~3</p>
<p>23</p> <p>뮤지컬 (누가 톨을 던진거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 전석 2만원 ☎가람뮤지컬 1544-4852</p> <p>연극<키사라기 미키짱>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 2만 5천원 ☎500-2000</p> <p>뮤지컬 '어린이 캣츠'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2만원 ☎도담엔터테인먼트 430-7832, 551-6602~3</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4시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24</p> <p>김제동 토크쇼 시즌3-노브레이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1층 R석 7만7천원, 2층 S석 6만6천원 ☎청라아트 1566-6551</p> <p>연극<키사라기 미키짱>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6시 / 2만 5천원 ☎500-2000</p> <p>로드 뮤지컬 '헬로! 파인데이'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전석 1만원 ☎580-1150</p> <p>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가이름 앙상블 '담은'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 오후 4시 / 무료 ☎440-6735</p>	<p>25</p> <p>김제동 토크쇼 시즌3-노브레이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1층 R석 7만7천원, 2층 S석 6만6천원 ☎청라아트 1566-6551</p> <p>연극<키사라기 미키짱>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 2만 5천원 ☎500-2000</p> <p>로드 뮤지컬 '헬로! 파인데이'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전석 1만원 ☎580-1150</p> <p>뮤지컬 '어린이 캣츠'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2만원 ☎도담엔터테인먼트 430-7832, 551-6602~3</p>	<p>26</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27</p> <p>이루마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 VIP석 6만6천원, R석 5만 5천원, S석 4만4천원 ☎도담엔터테인먼트 1544-3901</p> <p>바이브무용단의 인생격려프로젝트 -그레서, 어쩌라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일반 2만원 ☎VIBE무용단 017-320-5399</p> <p>사랑방 송년음악회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505-5995</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2012 마일 SHOW 인천문학씨어터 소극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예총 866-2019</p>	<p>28</p> <p>바이브무용단의 인생격려프로젝트 -그레서, 어쩌라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일반 2만원 ☎VIBE무용단 017-320-5399</p> <p>사랑방 송년음악회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505-5995</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2012 마일 SHOW 인천문학씨어터 소극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예총 866-2019</p>	<p>29</p> <p>솔비쇼 3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2시, 4시 R석 9만9천원, S석 3만원 ☎극단유리기만 1544-3901</p> <p>어린이간강교육뮤지컬 (쿵구멍을 훔치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4시 / 전석 2만4천원 ☎에인프로덕션 1566-9921</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6시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2012 마일 SHOW 인천문학씨어터 소극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예총 866-2019</p>
<p>30</p> <p>솔비쇼 3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2시 R석 9만9천원, S석 3만원 ☎극단유리기만 1544-3901</p> <p>어린이간강교육뮤지컬 (쿵구멍을 훔치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4천원 ☎에인프로덕션 1566-9921</p>	<p>31</p> <p>제야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0시, 2시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2012년 송년 제야의 밤 콘서트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오후 7시 / 무료 ☎440-4022</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p>휴먼 코미디 공연 '행복해, 장유씨?'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중·고생 1만원 ☎010-9692-3720</p>

아라비아 황톳빛 언덕에 서다



아라비아반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요르단(Jordan)의 정식 국명은 요르단 하삼왕국이다. 요르단은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다.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와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 곳에 있다.

그 옛날 낙타타고 실크로드를 거쳐 갈 수 있었던 길을 이제 비행기로 황해-장강-천산산맥-고비사막 등 바다 건너 산 넘고 강을 지나서 족히 15시간은 걸려야 만날 수 있다. 지구 반 바퀴는 돌아야 닿을 수 있을 만큼 멀리 있지만 일찍이 우리나라와 1962년 7월 26일 외교관계를 맺으며 50년 동안 형제애를 나누었다.



한국과 요르단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천의 기록사진가 김성환(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의 요르단 사진전이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국들을 방문해 각 나라의 문화와 유산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김성환 교수는 이번 사진전에서 요르단의 페트라와 와디람을 비롯한 세계적 문화유산들과 함께 요르단 사람들의 생활모습, 자연환경을 작가의 독특한 시각으로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한·요르단 수교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 주관하고, 주한 요르단 하삼왕국 대사관이 후원한다.

12월의 展

- 01일~06일 제16회 인천광역시 공예인협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01일~06일 인천수채화아카데미 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01일~06일 제43회 인천사생회 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01일~06일 제2회 인천후회 정기화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01일~06일 인천의 섬-생명과 환경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07일~13일 제6회 람정서도회 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07일~13일 송미영 사진전 Listen to the trees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07일~13일 원명숙 수채화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07일~13일 제15회 인천미협 수묘사생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11일~16일 한중일 수채화교실 교류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14일~20일 환경과 미술의 만남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14일~20일 제3회 현대조형예술협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14일~20일 기록과 기억의 중심에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21일~27일 제7회 인천미술협회 회원작품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21일~27일 인천대 디자인학부 재학생 과제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21일~27일 제9회 오프나위 화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21일~27일 제10회 박흥주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26일~2013년 1월 6일 2012년 초·중·등 예술영재 합동 발표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공연 한 편 어떠세요?



연말이면 송년모임 약속들로 달력이 빼곡히 채워진다. 하지만 흥청망청한 술자리보다 좋은 공연 한 편 보는 것이 어떨까? 마무리가 깔끔하면 새로운 시작도 즐겁다. 선물처럼 풍성한 12월의 다양한 공연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2013년을 새롭게 출발하자.

글: 사진 김윤경_시 인터넷신문 I-View 편집위원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에 물들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의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피아노 공연이 연말 분위기를 북돋는다. 섬세한 감성과 깊은 울림으로 마음을 위로하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공연이 12월 27일 오후 8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연주 공연 중 가장 많은 공연 횟수, 관객이 관람한 그의 공연은 '기억에 머무르다'라는 제목처럼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의 기억을 피아노 선율로 그려낸다. 또 이름만으로도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클래식계의 두 스타, 리처드 용재 오닐과 임동혁이 한 무대에서 매력적인 피아노 연주를 보여준다. 27일 오후 8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꿈같은 레퍼토리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연말 분위기에 역시 크리스마스 캐롤



윤하원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이 12일과 13일 오후 7시 30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에서 따뜻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인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형형색색의 캐롤을 인천시립합창단만의 정제된 음색으로 들을 수 있다. 여기에 합창의 행복을 전하는 인천시민합창단 여덟팀이 함께 해 더욱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2일 중합문화예술회관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란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에 오페라와 뮤지컬적 요소를 더한 음악회를 연다. 때로는 성스럽게 때로는 즐겁고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천상의 화음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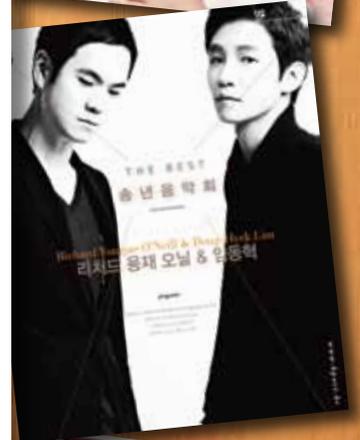
가족의 소중함 돌아보는 연말

한해를 마무리 할 때면 으레 가족들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연극 한 편으로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친정엄마와 딸 이야기로 대한민국을 웃기고 울린 '엄마신드롬'의 최강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드디어 인천관객을 찾아온다. 고혜정 작가와 구태환 연출이 손을 잡고 특유의 따뜻함과 가슴 뭉클함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친정엄마와 2박 3일'은 엄마와 딸의 마지막 2박 3일 간의 이야기를 담은 소재와 배우들의 호연, 관객들의 연이은 호평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눈물과 감동, 웃음 속에서 진한 가족의 사랑을 전해줄 이번 공연은 2012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12월 21~22일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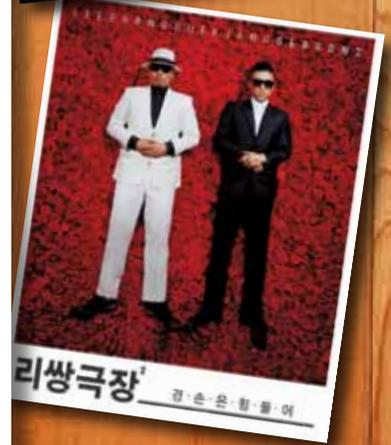
크리스마스엔 '호두까기인형'을

이번 연말에는 유독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공연이 가득하다. 5, 6일 이틀간 중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가족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가 선보인다. 또 매년 변하지 않는 크리스마스 단골 레퍼토리 '호두까기 인형'이 13일과 14일 계양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5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은 겨울 최고의 발레 판타지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멋진 공연이 될 것이다. 고양이들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그린 어린이 뮤지컬 '캣츠도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2일부터 25일까지 계양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고양이들의 귀여운 몸짓과 라이브 노래, 개성 있는 고양이들의 의상, 볼거리 풍부한 무대로 자녀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외에도 21일과 22일 중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는 육십쟁이 스쿠르지 영감의 이야기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뮤지컬 인형극 '크리스마스 캐롤'이 펼쳐진다.



콘서트로 한 해 스트레스 날리자

언제부터인가, 연말이 되면 가수들의 콘서트가 줄줄이 펼쳐진다. 신나게 노래 부르고 같이 호흡하다 보면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품게 된다. 12월 1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이승철 콘서트를 시작으로 8일 부활 콘서트, 15일과 16일 리쌍 콘서트가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또 24일에는 슈퍼스타 TOP12 콘서트, 25일에는 박진영 콘서트가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펼쳐진다. 특히, 2012년 마지막날에는 중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인기가수와 성악가들이 대거 출영하는 '제야 송년 콘서트'가 새해 첫날까지 열린다.





“파래김 만난 게 인생의 행운”

글. 이용남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그의 얼굴은 시인을 닮았다. 수줍은 듯 미소짓는 얼굴, 안경너머로 비친 눈은 맑다. 재래 시장에서 장사로 투박하게 잔뼈가 굵어 온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인천 석바위시장에서 5년째 즉석구이 김 장사를 하고 있는 운영육(47)사장. 시장사람들이 그렇듯 그도 가장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살기 위해 시장에 들어왔다. 처음 시작한 품목은 도넛이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조리김인 파래김으로 업종을 바꿔 히트를 쳤다. 윤 사장은 하루 종일 7~800℃의 이글거리는 숯불 위에서 김을 굽는다. 숯불 열은 얼굴에 화상 입힐 정도로 뜨겁다. 땀이 연신 주룩주룩 흘러, 수건으로 땀을 훔치면서 김을 굽지만 장사가 잘돼 어려운 줄 모르고 일한다.

이 집의 김은 재래 파래김이다. 집에서 구운것처럼 고소하고 바삭하다. 맛의 비결은 소금과 기름, 좋은 김이 이뤄낸 하모니다. 숯불이 김의 향내를 더 깊게한다. 김을 구워먹던 사람들도 이집의 김 맛을 보곤 다시는 김을 굽지 않는다는 뒷이야기도 전해진다. 한번 맛보았던 사람들이 다시 찾고 찾아, 겨울이면 김을 사려는 사람들로 줄을 선다. 재래시장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윤 사장은 현재 김을 굽고 있지만 젊은 날엔 용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조립PC를 만들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다. 용산에서 시작한 컴퓨터 관련 일은 부천, 인천으로 옮겨서도 계속 이어졌다. 대형마트에 컴퓨터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일하면서 매장관리, 직원관리, 회의 등을 총괄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 업무와 사람 때문에 생긴 극심한 스트레스로 너무 젊은 나이에 당뇨가 생겼고 결국 병 때문에 컴퓨터 일을 그만뒀다.

윤 사장은 하루 6천~8천장의 김을 굽는다. 아침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이다. 주문 들어온 것, 다음날 오전에 팔 것을 미리 준비한다. 삶을 위한 힘겨운 노동이지만 윤 사장은 지금 자신을 있게 해준 김이 고맙다. 또 김을 사기 위해 가게를 찾아주는 고객에게 항상 감사하다.

윤 사장은 고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길은 서비스 개선에 있다고 믿고 있다. 김을 사면 10% 적립은 물론 쿠폰을 지급한다.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윤사장은 석바위시장 상인연합회 이사를 맡아 재래시장 살리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이 즐겁고, 오고싶은 곳으로 만들어 상인과 시민이 모두 행복한 장터를 만드는 꿈을 실천하고 있다.



GCF 녹색바람, 이제 시작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성공에 따른 후속대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달 19일 관련사항에 대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GCF 지원을 위한 정식 조직 출범 시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공단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2대 전략, 4대 분야, 20대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GCF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글로벌 서비스 센터 활성화, 외국인 친환경 정주조건 조성, GCF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으로 GCF 사무국의 조기정착을 돕기로 했다.

또 세계은행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 유치, UN

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중심지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국제기구도시화를 중장기적으로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녹색정책 연구 싱크탱크와 인천 GCF 설립·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등 글로벌 녹색수도화와 저탄소 녹색도시 인프라의 구축도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GCF 사무국이 들어설 I-Tower의 무료임대, 송도컨벤시아 무료 사용 문제 등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 저탄소 친환경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치고, 국제기구도시(워싱턴, 뉴욕 등)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사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선 후보 공약에 송도컨벤시아 증설과 GGGI 유치, 금융중심지 지정 등 GCF의 후속사업을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고, GCF 사무국 인천 유치백서도 제작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12월부터 기재부와 GCF 사무국 이전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사무국 이전은 내년 6월쯤 시작될 예정"이라며, "I-Tower 인프라 구축과 우리시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440-3432

내년도 예산 6조 9천802억원 편성

우리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7.5%(5천646억원) 감소한 6조9천802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반회계는 4조6천867억원으로 올 예산대비 5.5%p(2천439억원) 증가했고, 공기업·기타특별회계는 2조2천935억원으로 26.1%p(8천85억원) 감소했다.

시는 내년부터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됨에 따라 1천800억원이 시 회계에서 빠져나가고 경기 불황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이 1천억 가량 축소된 것 등이 공기업·기타특별회계가 크게 감소한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3-care(보육, 교육, 일자리창출)사업,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 준비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예산담당관실 ☎440-2242

'원적산길 생태통로' 준공

우리는 원적산과 함봉산을 잇는 원적산길 생태통로를 완성해 지난달 21일 준공식을 가졌다.

생태통로는 새사미고개를 지나는 왕복 6차선 원적산길 위에 길이 80m, 폭 65m, 높이 10m의 규모로 조성됐다. 그동안 원적산길로 인해 원적산과 함봉산이 끊어져 있어 생태계가 단절, 각종 육상동물들이 자취를 감췄다.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연결해 생태계 종다양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보전하기 위해서 두 산을 잇는 생태통로가 필요했다.

생태통로는 총 면적 6천194㎡규모로 나무 1만1천 그루를 심었고 돌더미와 나무더미, 조류먹이공급대, 동물유도펜스, 생태연못, 생태계류 등 각종 비오톱 시설을 들었다. CCTV를 설치해 생태통로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440-3533



김교흥 정무부시장 취임

김교흥 제13대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난달 19일 시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시작했다.

김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각종 원도심 개발 사업을 비롯한 신·원도심의 균형 발전에 힘쓰겠다"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효과가 송도뿐 아니라 원도심 개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당에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는 물론 중앙부처와의 유대를 강화하겠다"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끌어오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시장은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제17대 인천 서구·강화갑 국회의원(당시 열린우리당)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유치특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국회 방문단장 등을 역임했다.

문의 : 시 총무과 ☎440-2503



반도체 기업, 영종 자유무역지역 이전 MOU

우리는 지난달 19일 스타츠칩팩코리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스타츠칩팩코리아의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싱가포르계 업체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스타츠칩팩코리아는 연매출 8천억원, 종업원 2천5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시는 이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최근 송도국제도시 투자 협약을 체결한 엠코테크놀로지와 더불어 인천이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유무역지역이 물류 업체 위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 복합물류 제조산업 단지로 부상할 것으로도 기대했다.

문의 : 시 투자유치담당관실 ☎440-3298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1단계 준공

외국 대학 공동 캠퍼스인 인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 우리는 지난달 20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1단계(1·2공구) 준공식을 가졌다.

강의·연구동과 도서관, 기숙사, 교수아파트 등으로 구성된 1공구는 작년 11월 준공됐으며 대강당, 중앙도서관, 체육관, 연수원, 학생회관 등인 2공구는 이번에 마무리됐다.

3공구는 강의연구동과 도서관, 교수아파트 등을 포함해 추가로 지어질 예정이다. 1단계사업 총 사업비는 5천40억원에 달하며 3개 공구가 모두 준공되면 연면적 29만3천936㎡의 시설에 5천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다. 2단계까지 준공해 캠퍼스가 완성되면 학생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한편 1단계 캠퍼스에는 지난 3월 개교한 한국뉴욕주립대에 이어 내년 9월 조지메이슨대(미국), 2014년 유타대(미국)와 겐트대(벨기에)가 입주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33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우리는 여성정책전문기관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을 발족했다. 지난달 21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설립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에는 15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해 설립취지문을 채택하고 정관, 이사회 구성 및 대표이사 공모,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세부적인 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발족됐으며, 앞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개발, 지역여성의 역량강화,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693



러 상원의장 "페테르부르크대 인천분교 설치 지원"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우리시를 방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분교 설치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우리시를 방문한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송도국제도시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에서 열린 오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분교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우리시는 지난해 3월 상트페테르부르크대 인천 분교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724년 설립된 상트페테르부르크대는 노벨상 수상자 8명을 배출했으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도 이 대학 출신이다. 한편 마트비엔코 상원의원은 시가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군함 '바랴그(Varya)호'의 깃발 대여 기간을 2년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232



청라 하나금융타운 내년 상반기 착공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하나금융타운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심사를 통과, 내년 상반기 착공할 전망이다. 지난 11월 16일 하나금융타운 건설사업이 '청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하나금융타운은 연내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본격 착공돼 2016년 상반기까지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이다. 약 33만㎡(10만평) 규모로 조성될 금융타운에는 하나금융 지주사, 금융 R&D센터, 교육연수시설, 정보기술(IT) 센터, 물류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지역사회를 위한 미술관 등 문화·체육시설도 조성된다.

문의 : 투자유치본부 ☎453-7422



연세대 인천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

우리시는 지난 11월 20일 연세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에서 인천 시교육청, 연세대학교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인 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했다. '연인 프로젝트'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수학하는 우수한 재능과 잠재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내년부터 인천 지역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습지도와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교육청은 프로젝트의 수요파악, 학습장소 및 시설 등을 제공한다. 연세대는 학습지원 봉사자 선발 및 공급, 사회 봉사과목 개설 및 운영, 멘토링 사업 등을 지원한다. 시와 시교육청, 연세대는 내년 2월까지 대상자 및 프로그램을 확정 후 3월 국제캠퍼스에서 대대적인 '연인 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시 교육지원관실 ☎440-2172



인천도시공사, 소셜미디어대상 수상

인천도시공사가 '제5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 공기기업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인천상륙작전'이란 콘셉트를 구축한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의 대표 캐릭터인 '투왕'과 인천의 시조(市鳥)인 두루미를 의인화한 캐릭터 '루미'로 이용자와 친근감과 활발한 소통을 꾀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지난 5월에 첫 선을 보인 인천관광 블로그 인천상륙작전(yourincheon.tistory.com)은 웹툰, 영상 등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탄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블로그와 SNS를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소셜허브'를 구축, 방문자 편의를 고려한 매체 구성으로 차별화했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260-5000

배다리에 '故 박경리 북카페' 들어선다

지난 2008년 타계한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故 박경리를 기억하는 북카페가 인천에 들어선다. 동구는 예산 3억원을 들여 '배다리 마을'이라 불리는 동구 금창동에 '故 박경리 북카페'를 내년 3월쯤 지을 예정이다. 박 작가는 지난 1948년 당시 22살이던 당시 인천의 한 염전에 취직한 남편을 따라 배다리 마을로 이사를 왔으며, 헌책방을 열어 2년간 인천에서 거주했었다.

문의 : 동구청 ☎770-6131

관광사진 공모전 대상작 '아이타워' 선정

우리시는 '제4회 인천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작으로 김일구씨의 '아이타워(-Tower)'를 선정했다. 전국 사진 동호회원이 참여한 이번 공모전에는 인천의 관광명소, 문화유적, 축제·레포츠, 즐길거리, 도시발전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천412점이 출품됐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김일구씨의 '아이타워'는 송도 중앙호수공원과 세계 최초 역셀구조 건축물인 트라이볼(Tri-bowl) 내년 2월 준공해 경제자유구역청과 GCF 사무국이 들어설 아이타워를 안정감 있는 구도로 표현해 국제도시의 위상과 미래를 잘 나타낸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입선자 명단 및 작품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홈페이지(www.icnpask.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440-4055

상수도 요금 4.9% 인상안 추진

상수도 요금이 5년 만에 오를 전망이다. 우리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상수도 요금을 4.9%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당초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2% 인상안을 요구했으나, '시민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정부의 원수 인상률과 같은 4.9%로 정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 새 요금이 적용된다. 시 상수도본부는 신규 사업 추진 비용 마련과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720-2042

인감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리 신청이나 발급은 불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해 서명입력을 한다. 본인의 서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이름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현행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440-2433



역시~ 강화젓갈이 최고~!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강화 새우젓이 유산균 함유량이 높고, 염도가 낮아 타 지역의 새우젓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강화 앞바다에서 잡힌 새우젓을 1년간 숙성시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새우젓에 비해 저염이면서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고 적절한 숙성이 이루어져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새우젓 3대 생산지로 꼽힐 정도로 유명한 강화 새우젓은 과학적인 분석에서 우수성이 입증돼 인천의 특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영류가 풍부해 맛과 영양이 좋아 김장철 새우젓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화의 새우젓은 지난해 7월 강화군 외포리에 설치된 최신식 저장시설에서 숙성과 적정한 발효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

문의 : 보건환경연구원 ☎440-5446



인터뷰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구도심 균형발전 적극 지원”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는 신도시에만 집중됐던 자원과 역량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재생을 위한 비용으로 투입해 신·구도심간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구도심 재개발 방식을 과거 원도심 지역에서 추진되던 대규모 철거 개발, 획일적인 대형 콘크리트시설 건립방식에서 탈피, 가능한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집행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 위원장은 후반기 건교위원회의 정책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과 대중교통분야 현안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데 두고 담보상태에 놓인 대형건설사업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교통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증진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을 방문,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공약을 잘 지키고 주민과 잘 소통하는 정치구현을 의정목표로 삼고 약속한 공약은 꼭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김영태 교육위원회 위원장

“즐거운 교육현장 만들터”

“후반기 교육위원회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만족을 주고, 좀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며, 교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영태 위원장은 학교를 폭력없는 즐거운 교육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인천의 수능성적 향상 차원에서 제2과학교를 설립하고, 학업성취목표관리제와 기초학력 책임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지원과 학교별 비전과 목표를 세워 엄격하게 주시하고 지도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 토론회, 간담회를 자주 열어 학부모와 교직원 의견을 자주 듣고, 반영할 생각이다.

또 위원회 발전차원에서 교육방향을 수시로 체크하고 집행부와 의견교환, 사전보고 등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계양구와 강화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명품지구 추진을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의정목표로 삼고 있다.



‘복지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 의원 교육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지난 달 5일(월) 오후 2시 시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원 37명과 복지 관련분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김성재 경인방송회장(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미국식 자선적 복지를 확대하는 분야별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처럼 복지정책이 교육, 의료, 주거, 환경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사회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런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평등지향의 인간다운 복지국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문성이 폭넓게 향상되어 시민에게 밀접하고 더 다가가는 복지 의정활동이 한층 성숙해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이 기존 남동구에서 연수구로 이전함에 따라 10월 16일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사업비 1천191백만원(국비 595, 특고 500, 시비 96)을 투입하여 대지 2천170㎡, 연면적 853㎡의 지상1층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전시장, 다목적홀, 카페,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설 운영주체는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 향후 장애인생산물 판매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태국 방콕시의회 방인

인천광역시의회와 우호교류협정 체결 도시인 태국 방콕시의회 대표단 15명이 지난 달 3일 시의회를 방문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대표하여 대표단을 맞이한 김영분 부의장은 방콕시의회가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에서 주최한 인천국제자매우호도시 축구대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였고, 이런 스포츠 및 문화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고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태국 방콕시의회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책개발 연구과제 추진 업무협약식

인천광역시의회와 (재)인천발전연구원은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과 연구원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상호간 협력차원에서 지난 10월 25일(목) 오후 3시 의장접견실에서 정책연구과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시의회·상임위원회별·현안사업 및 의원별 관심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 참여, 의회 및 의원연구 역량 강화사업 참여 및 지원 등으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의회에서 의장, 김영분 부의장, 구재용 운영위원장,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 허인환 산업위원장, 이도형 건설교통위원장,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원장, 부원장, 기획본부장, 도시기반연구부장, 선임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생활정보

‘2013년 지역공동훈련’ 국비 무료 훈련생 모집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구인천인력개발원)는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100% 취업알선,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매월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관심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주최 :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 인천상공회의소

주관 :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훈련기간 : 2013년 3월 ~ 12월

훈련대상 : 관내 구직자 및 재직자

훈련규모 : 156개 과정, 4천934명

※ 구직자 대상 양성훈련 1천139명, 재직자 대상 향상 훈련 3천795명

훈련생 모집사항

• 모집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2월

• 모집인원 : 540명(18개 과정)

※ 전체 4천934명 중 양성훈련 1, 2년 과정만 모집중임, 잔여과정은 수시 모집

• 기타사항 : 훈련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기숙사 사용 가능

• 문의 : 810-6520~5

이무석 박사와 함께하는 힐링 토크콘서트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최근 범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자살문제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하여 '이무석 박사와 함께하는 힐링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일시 : 12월 7일(금) 오전 11시~ 오후 1시

장소 : 서부교육지원청 4층 대강당

대상 및 참석 : 지역주민 누구나

내용 : - 정신건강 홍보관운영(행사장 앞 로비)

- 영상스팟특강 실시(생활 명상과 이완)

- 힐링(Healing)을 위한 토크콘서트(Talk Concert) with Dr. 이무석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의 관리'

이무석 박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몇 안되는 국제정신분석가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로, <30년만의 휴식>,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 저자다. 또한, 한국일보, 신동아가 추천하는 한국의 명의로 선정된 바 있다.

※ 선착순 참여자에게 '명상과 이완' CD를 선물로 준다.

성폭력추방 온라인 100만 서명운동

여성아동폭력피해추방단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마음을 담아 '성폭력 추방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서명기간 : 11월 3일 ~ 12월 31일

홍보매체 : 아동·여성폭력피해중앙지원단(페이스북명 : 희망샘물)

• 지원매체 : 여성긴급전화 1366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시설험의회

※ 공식 페이스북명 : 희망샘물(www.facebook.com/womannchild)

참가방법 : 실천다짐을 읽고 소감을 담벼락(댓글게시판)에 게시

경품지급 : 커피상품권, 영화상품권

문의 : 440-2978

‘빛과 공간’ 소속 작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빛과공간’ 소속 작가들이 모여 ‘환생’사진전을 연다. 전시는 규격화되고 정례화된 사진 세계에서 벗어나 유희하듯 카메라의 장치를 통해 즐겁게 점유한 사진들을 모았다. 먼 곳이 아닌 내 옆에서 즐거움이 담겨 있는 담론을 쉽게 풀어가며 각각이 정체된 기억의 편린을 모아 발표했다.

전시명 : ‘환생’(還生)

전시 : 12월14일(금) 10:00 ~ 12월 20일(목) 17:00

전시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2012 인천우수기업 선정

우리시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비전기업'과 인천에서 오랜 기간동안 기업을 영위하여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향토기업'을 선정했다.

선정기업 : 336개 기업체(비전기업 319, 향토기업 17)

기업확인 :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 홈페이지 : 인천소식 → 고시공고 • 중소기업지원과(440-4252)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www.ibaincheon.kr)

• 홈페이지 : 종합게시판 → 진흥원사업공고

문의 : 사업부 경영지원팀(260-0249)

영종도서관 12월 문화프로그램

영종도서관은 12월 동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관심 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12월 문화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대상
전시	우부 민승기 멋스러운 우리 한글전	12월 1일(목)~30일(일)	1층 로비	전체
	어린이 독서동아리 작품 전시전 『자랑 한마당』	12월 4일(화)~30일(일)	꿈자리터 (1층 어린이실)	전체
	신비로운 문자, 한글도서전	12월 1일(목)~30일(일)	어문학실	전체
상시	빛그림무지개 「영상동화 읽어주기」	12월 1일, 15일(토) 11:00-12:30	꿈자리터 (1층 어린이실)	초등
	도서관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책나라 여행	매주 금 16:00-16:50		유아
	행복 전하는 동화배달부 찾아가는 동화 읽어주기	12월 20일(목) 15:00-17:00	인천보라매아동센터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특별	〈송년행사〉 "함께 떠나실래요? 음악이 흐르는 독서여행"	12월 22일(토) 15:00 ~ 16:30	1층 로비	-
	작은 천재 다빈치 2기	12월 1일(토)~15일(토)	세미나실 2	초등
	영화로 만나는 직업의 세계	12월 8일, 22일(토)	소극장	중등
	영종도서관 2012 북스타트(BookStart)	12월 매주 금요일 10:00-14:00	꿈자리터 (1층 어린이실)	유아

문의 : 745-6000

석남 타계 3주기 추모전 李慶成, 그 사람

인천시립박물관은 2012년 특별전을 연다. 시립박물관 초대관장이자 미술평론가로 한국미술계를 이끌어 온 이경성 추모전은 이경성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업적을 살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개요

전시명 : 石南 타계 3주기 추모전 「李慶成, 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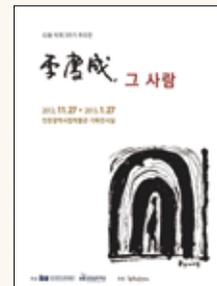
전시기간 : 11월 27(화) ~ 2013년 1월 27(일)

전시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자료 : 석남 이경성의 유품, 저서, 작품 등 200여 점

전시구성

- 1부. 그 사람, 미美的 유품민
- 2부. 그 사람, 그리움의 궤적
- 3부. 그 사람, 인천에 이르는 두 갈래 길
- 4부. 그 사람, 관장 이경성



12월 문화 즐기세요

울목도서관은 2012년의 마지막인 12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문화행사를 즐기면서 12월을 보내는 것도 즐거울 듯하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울목도서관 학부모 대상 특강

제목 : 나도 처음이란다

운영기간 : 12월 4일(화) ~ 7일(금)

운영내용 :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및 영어학습 코칭 방법에 대한 강의

접수기간 : 11월 13일(화) ~ 12월 2일(일)

접수방법 : 울목도서관 별관 어린이실 전화 및 방문 접수

문의 : 770-3808, 3811(어린이실)

울목도서관 12월 클래식 인문학

제목 : 울목도서관 클래식 인문학

[20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옴 프로그램]

운영기간 : 12월 1일(토) ~ 22일(토)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운영내용

- 주제 : 피아노, 영화를 연주하다
- 강사 : 권성화(피아노), 장한섬(해설)

일시	교육주제	비고
12월 1일(토) 오후 2시	고향 & 예술	청소년 이상 지역주민 누구나 (50명 내외)
12월 8일(토) 오후 2시	부모 & 예술	
12월 15일(토) 오후 2시	스승 & 예술	
12월 22일(토) 오후 2시	연인 & 예술	

문의 : 770-3804

12월 인문학 특강

제목 : 인문학특강 「비움+채움」

운영일시 : 12월 13일(목) 오후 7시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운영내용

- 주제 : 성(성공) 누가 새로운 판을 만든다[부제: 내가 만든 매체들]
- 강사 :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새로운 100년>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등 다수

문의 : 770-3802

12월 도시인문학 강좌

제목 : 근대도시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묻다

운영일시 : 12월 8일(토), 오전 10시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운영내용

- 주제 : 해외의 역사문화도시(1) 천년고도, 교토(京都)의 재생
- 강사 : 박진현(인천대)

문의 : 770-3804

인하대 특성화고 재직자전형 모집안내

인하대학교는 특성화(전문계)고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을 올해부터 신설하여 직장근무 3년 이상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전공학부(신설)로 선발하고 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고졸업일 이후 2013년 3월 1일 기준,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재직자

모집단위	모집시기	모집기간	모집인원(정원외)
자율전공학부	정시	2012년 12월 21일(금)~ 26일(수)	90명

전형단계	반영요소 및 비율	평가방식
일괄합산	서류평가 100%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본인이 제출한 능력인증서류를 바탕으로 본교 자체 기준에 의해 종합평가

※ 전형료 무료

입학상담 : 860-7216,3~5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자율전공학부'소개

교육목표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교를 졸업한 산업체 재직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창의력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양성한다.

자율전공학부 소개

인원 : 103명(수시 63명, 정시 40명)

운영방식

- 특성화고교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 서류평가로 선발하여 융합교육트랙(기계, IT, 경영) 운영
- 현장실습학점 인정 확대 및 실습 위주의 재직자 대상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

교과과정 구성

졸업이수학점 : 130학점

학점 구성	학점 이수
3+0.5+0.5 교과과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 학기 16~19학점 이수 주중 2회 야간 3시간, 주말 6시간, 이라วัน 6시간 수업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양 및 전공수업 3년 + 현장실습 1학기 + 캡스톤 디자인 1학기

주택연금으로 당당한 노후 누리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는 주택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는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제도다. 2013년부터 지급기준 변경으로 월지급액이 감소가 예상되기에 가급적 2012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요건

- 연령 : 부부 모두 60세 이상
- 대상 주택 : 시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 및 노인복지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법상 주택)
- 부부기준 주택 1채 소유

가입하면 좋은 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월 지급금 예시(주택가격 : 1억, 3억 정액형 기준)

(단위:천원)

가입연령	1년	3년
60세	240	720
70세	340	1,039
80세	530	1,609

주택연금 종류 및 상환

- 부부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미거주 등
- 대출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상환

주택가격 > 대출잔액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됨
주택가격 < 대출잔액	부족분에 대해 별도 청구 없음

문의 : 441-2159, 2172

김승혜사진전 'nowhere'

사진전문 갤러리배다리에서는 김승혜 사진전 'nowhere'을 연다. 'nowhere'는 아무데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잡으려는 현대인의 욕망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일시 : 12월 14일 ~ 26일

장소 : 사진공간 배다리

오픈 : 12월 14일 오후 7시

문의 : 070-4142-0897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이렇게 하세요

올 겨울도 매서운 한파가 예상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요령을 마련했다.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요령》
- 수도계량기, 노출된 수도관은 한옷, 담요 등을 덮어 보온하세요.
- 기온급강하로 영하의 날씨가 지속될 때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받아 사용하세요.
- 동파신고는 상수도사업본부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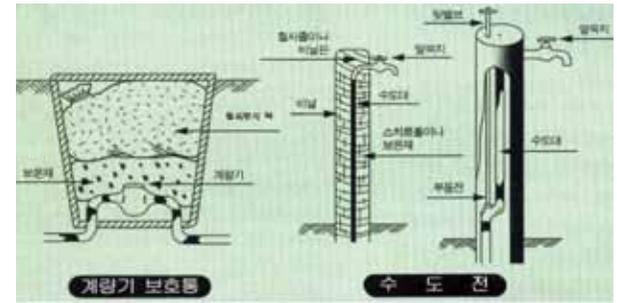
겨울철 상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요령

동파의 원인?

- 영하의 날씨가 지속 될 때
-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동파방지 요령

- 계량기 보호통 내부로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통 뚜껑이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 계량기, 옥상물탱크는 스티로폴 또는 보온재 등으로 보온한다.
- 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고인 물은 반드시 제거하고 보호통 내부는 동파방지 팩 등 보온재를 채워 보온한다.
- 옥외 수도전은 동결·동파방지를 위하여 앞 수도꼭지 밸브는 열어 놓고 뒷 밸브만 사용한다.
- 장기출타 등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때 수도사업소로 급수중지 신청한다.



동결·동파 조치요령

- 동파방지팩 설치 및 동파된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소에 즉시 연락 주시면 무상으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 계량기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열어붙은 수도관이나 계량기는 파열예방을 위하여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로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 상수도 콜센터 : 국번없이121 - 중동부수도사업소 : 720-3200
- 남부수도사업소 : 720-3300 - 연수수도사업소 : 720-3500
- 남동수도사업소 : 720-3400 - 부평수도사업소 : 720-3600
- 계양수도사업소 : 720-3700 - 서부수도사업소 : 720-3800
- 강화수도사업소 : 720-3900

미추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미추홀도서관은 임진년 마지막 달 12월의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FOCUS!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류성환 작가전	12월 13일(목)~31일(월)	미추출터(1층)	전체	440-6643
훼손도서 전시회	12월 1일(토)~16일(일)	로비 유리부스(1층)	전체	440-6662~4
그린 환경 매직 퍼포먼스	12월 1일(토) 14:00~15:30	강당(지하1층)	전체	440-6662~4

ALWAYS!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시민건강강좌 (주제 : 대장암)	12월 8일(토) 10:30~11:30	세미나실 I (3층)	전체	440-6662~4
북스타트 아기 천사들의 목(목)소리	매주 목요일 11:00(1회), 15:00(2회)	꿈나무터(1층)	인천시 2012년 출생영아, 만18개월 영유아 및 부모	440-6647~8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일 14:00	강당(지하1층)	-	440-6641~2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요일 16:00	꿈나무터 문화교실(1층)	4세~초등 5학년	440-6647~8
꿈나무터 견학	매주 화·목 10:30	꿈나무터 문화교실(1층)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세상	매주 목요일 10:40	꿈나무터 문화교실(1층)	미취학 아동	440-6634~5
책미중(관외예약 대출·반납)서비스	24시간 대출·반납	예술회관역(지하2층) 미추홀도서관 (1층입구)	미추홀도서관 회원(타관회원→등록 후 이용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ichuholib.go.kr)를 참고하세요.

문의 : 440-6624

가슴 따뜻한 휴먼드라마 '행복해 장유씨'

'극단사랑마을 그리고 사마귀와 베짚이... 비상!'은 웃음과 감동이 살아있는 90분간의 무대 '행복해 장유씨'를 공연한다. 이 공연은 옛날 앨범 속 빛 바랜 사진들을 꺼내보는 듯한 가슴이 따뜻해지는 휴먼 드라마다.

공연명 : 행복해, 장유씨?

일시 : 12월 13일~30일

평일 오후 7시 30분(월요일 휴관)

토,공휴일 오후 4시, 6시, 일요일_오후 4시

장소 : 인천 수봉 문화회관 소극장

관람료 : 일반, 대학생 2만원, 중고생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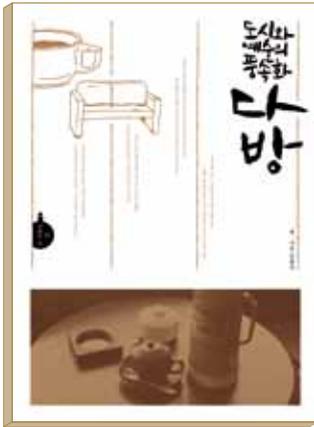
단체 (10인 이상) 1만원

사랑티켓 www.sai.or.kr

문의 : 010-9692-3720

주최,주관 : '극단 사랑마을 그리고 사마귀와 베짚이...비상!'

문화의 길 총서 시리즈 '도시와 예술의 풍속화, 다방'



시인이자 인천문화협회 회장을 지낸 김윤식 선생이 신문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도시와 예술의 풍속화, 다방' 책을 펴냈다. 책은 인천문화재단이 기획한 문화의 길 총서 시리즈중 다섯 번째다. 지금은 커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다양한 차를 판매하는 카페들이 즐비하지만, 과거에는 차를 마시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공간으로는 다방이 유일했다. 이 책은 커피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고 처음으로 대불호텔에서 커피를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제공한 일에 이어, 마침내 다방이 서울에서 탄생한 경위를 설명한다. 또한 1930년대, 인천에도 초기 모던 다방이 생긴 사실을 실마리 삼아 항도 최초의 다방 역사를 다룬다. 아울러 예술인들의 전용 공간으로서의 다방과, 그것이 급기야 한국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 세계 초유의 독특한 다방 문화를 만든 사회사적인 면을 살피고, 다방이 한국인의 삶과 사회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 본다. 더불어 1960년에서 1970년대 인천의 다방 모습이나 그곳에 드나들던 사람들, 그리고 저자 개인의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재미를 더한다.

인천문화재단과 한겨레출판이 손잡고 펴낸 문화의 길 총서 시리즈 5권은 1권이 '바다의 황금시대, 파시' (글·사진 강제윤 / 272페이지 / 값 12,000원)는 섬 전문가 강제윤의 생생한 복원으로 만나는 한국 바다의 이야기 보물창고 파시, 2권은 '화교 문화를 읽는 눈, 짜장면' (글·사진 유중하 / 224페이지 / 값 11,000원)으로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한·중·일 3국의 이야기타래, 3권은 '질주하는 역사, 철도' (글·사진 조성면 / 216페이지 / 값 11,000원) 이야기로 철로 따라 만나는 한국 근현대의 생생한 풍경, 4권은 '시공간을 출렁이는 목소리, 노래' (글·사진 나도원 / 208페이지 / 값 11,000원)로 시대, 도시, 사람의 노래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만난 음악의 뿌리와 줄기로 구성되어 있다.



'내일'을 향해 꿈을 펼쳐라

장학(獎學)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빛과 등대와 같다. 수많은 학생들이 장학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꿈을 펼쳐며 리더가 되기도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장학사업 이아말로 학생들의 희망뱅크라 할 수 있다. (재)인천장학회는 1984년 설립해 2012년도 상반기까지 7천725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열의는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돕고 있다.

인천장학회의 마르지 않는 샘은 시의 출연금이나 기업체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쌈지돈을 꺼내 지역의 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만든 '우리동네 작은 장학기부클럽'이다. 동사무소 32명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3명의 학생에게 매월 21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공무원 70여 명으로 구성된 동호회는 동호회비 중 일부를 인천장학회에 매월 1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동네작은장학기부클럽'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인천장학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부금 소득공제, 영수증도 발급받는다. 인천의 인재는 인천시민이 키운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에 기부클럽이 인천전역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 인천장학회는 그간 매년 인천인 장학생을 500명을 선발했고, 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기부클럽 조성, 연세대학교와 함께하는 연인 프로젝트 등 멘토링 사업, 기업으로부터 장학금 수탁관리, 장학재단간 자매결연을 맺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인천장학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속에서 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요소가 사람이라는 판단하에 녹색희망장학금을 신설하여 장학생 지급대상자를 1천여 명까지 확대하고 지속적인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2013년부터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인천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등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2013 인천 사자성어 공모합니다

인천시는 2013년 계사년을 준비하며 시민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GCF 사무국 유치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표현할 '인천 사자성어'를 시민대상으로 공모한다.



사자성어로 표현될 내용

- GCF 사무국 유치로 높아진 인천의 국제적 위상과 세계로 나아가는 비전을 담은 사자성어
- 2013년 시민이 바라는 인천을 표현한 사자성어로 한글과 한자는 물론 뜻풀이도 함께 적어야하며, 출처나 유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응모편수 : 사자성어 응모편수는 2개 이내이며, 공모내용에 부합한 사자성어를 보낸 분 중 20명을 선정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선정방법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며, 선정된 분들에게는 개별통보한다.

응모기간 :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 이메일 : yona@korea.kr • 팩스 : 032)440-8622
- 우편접수 : (405-750)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12월 10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보내주시는 분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기재. 팩스로 응모한 분 들은 보낸 후 확인전화 바랍니다.

문의 : 440-8302

이달의 서평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주현성 | 더좋은책 | 2012

즐거기 위한 게임에도 신화가 숨어있고, 짧은 영화 한 편에도 영화에서부터 심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코드가 숨어 있다. 이처럼 인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초보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 책은 심리학, 회화, 신화, 역사, 철학, 글로벌 이슈 등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인문교양의 핵심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 어렵지 않게 인문 지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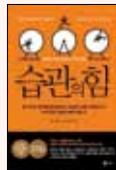


바람의 잔해를 줍다

제스민 워드 | 은행나무 | 2012

2011년 전미도서상(National Book Award)을 수상하며 비평가와 언론으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은 신예작가 제스민 워드의 장편소설로 대선준비로 한창 바쁜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에 놓여 있던 책으로 알려지며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작가가 실제로 겪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기억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 역동적인 묘사와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열다섯살 사춘기 소녀 에쉬의 목소리를 빌려 생사의 한 가운데에 위태롭게 놓인 가정의 모습을 그려내며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들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다.



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 갤리온 | 2012

하버드 MBA출신 뉴욕타임스 심층보도 전문기자 찰스 두히그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부류와 변화를 애타게 바라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부류의 차이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7퍼센트의 미국인만 사용했던 치약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스타벅스는 어떻게 말쑥꾸러기 직원을 1년만에 최우수 사원으로 만들었는지 다양한 사례로 자신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누구나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의 중심에는 습관이 있고, 왜 우리가 후회할 줄 알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



안녕 다정한 사람

은희경, 이명세, 이병률 외 | 달 | 2012

소설가 은희경, 영화감독 이명세, 시인 이병률, 소설가 백영옥, 소설가 김훈,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등 각계각종 명사 열 명이 세계 각국으로 '여행'을 다녀 온 기록을 담은 책이다. 이 모든 여행의 사진은 모두 이병률 시인이 동행하였다. 한명이 떠나고 돌아오면 바탕을 이어받아 다음 사람이 떠나는 식으로 여행에 올라, 한 달에 한 번씩 차례대로 그들만의 여행을 시작한다. 이 책에서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열 명의 명사의 이야기와 꿈, 기호, 바람 등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의 여행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마흔 즈음에 읽었던 중요한 책들	주선용	북성크	마흔을 위한 희망 책 45권 소개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주현성	더좋은책	우리시대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인문지식
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갤리온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스님의 청소법	마스노 순묘	예담	풍요로움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스님의 마음청소법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러라	크리스 길아보	명진출판사	삶의 방식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법
좋은 아버지 수업	임정목	좋은날들	사랑에 서툰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다움 공부
한국인 무병장수 법상의 비밀	KBS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	비타북스	KBS 생로병사의 비밀 10년의 기록
명작스캔들	장 프랑수아 세뇨	이숲	명화 뒤에 숨은 소설보다 재미있는 이야기
바람의 잔해를 줍다	제스민 워드	은행나무	허리케인의 한가운데 놓인 흑인 가족의 삶
비행운	김애란	문학과지성사	飛行雲과 非幸運 사이에 지친 이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랑외전	이와수	해냄출판사	작가 이와수와 정태연 화백이 함께 선보이는 다섯 번째 에세이
안녕 다정한 사람	은희경,이명세 외	달	명사 열 명의 이야기꾼이 열 개의 여행을 말한다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김애란

소설가

1980년 인천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 졸업

데뷔 : 2002년 단편소설 「노크하지 않는 집」

수상 : 2011년 제2회 젊은작가상

2010년 제4회 김유정문학상

2009년 제27회 신동엽창작상

2008년 제9회 이호석 문학상

2008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대표저서 : 달려라, 아비 (2005), 침이 고인다 (2007), 두근두근 내인생 (2011), 비행운 (2012)



소중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본 정보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구인자료로, 조기에 채용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032) 458-7488,74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인원	경력조건	학력	업무능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우리엔텍	생산관리자	1명	7년 이상	초대졸 이상	팬택(SKY)1차 협력사 장비~생산등 총괄 생산관리 08시~18시 (주 5일 근무)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3-7	연 3,800만원
대호창고	경리사무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보세창고 재고 및 입고출고, 세금계산발행 등 경리 단순업무 09~18:30(평일)/09~14(토)(격주)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91-1 2층	연 1,700만원
여산빌딩관리단	경리사무원	1명	1년 이상	고졸이상	빌딩 관리 업무 및 사무경리 업무 09~18(평일)/09~12(토)(격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여산빌딩 11층 관리사무소	월 100만원
성안어린이집	보육교사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어린이집 만2세 담임교사업무 (유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09~18시(주 5일)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477-4	월 104만원
사랑나눔복지센터	장애인생활지도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장애인활동 보조도우미업무 09~13(주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4-27 뉴서울프라자401호	시급 6,000원
한솔도시락주안역점	주방보조원	1명	신입	학력무관	한솔도시락 제조 및 포장업무 08~16 / 14~22(2교대)(주6일)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31-1	시급 4,580원
현성테크	기계 금속 및 캐드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판금설계 및 제관용접업무, 전기분전반 설계용접원 08:30~17:30(주 6일 근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62-6	연 2,500만원
진미푸드	운송 관련 관리자	1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인천시내 학교 김치 납품 및 김치숙성 관리 06~18(평일)/09~12(토) 주6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486	월 175만원
가산로지스틱스	지게차운전원	1명	1년 이상	학력무관	콘테이너 입고작업 및 화물차 출고 08:30~18(평일)08~14(토)(격주)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93-4	월 170만원
세광공업	배송 및 납품운전원	1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전산관용 부속품 배송 및 납품업무 09시~18시(주 5일근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30	연 2,000만원
케이윌테크	해외영업원	1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해외(중국)매출처 발주확인 및 업체관리업무(중국어상급자) 09시~17시30분(주 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350-26	연 2,200만원
문학개발	청원경찰	1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문학터널요금소 안전순찰, 영연소관리업무 (운전가능자) 08~20/20~08(주아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17-58 문학개발	연 2,200만원
삼흥관리시스템(주)	기계시설관리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기계시설관리 및 수변전설비 기계.전기자격증소지자 (주.야.비)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 신세계백화점	연 1,900만원
우성자동차유리	수리 및 정비관련관리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자동차유리 교환 및 수리 09~19시(평일)09~16(토)(주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0-1	월 150만원
부경산업	자동차부품 사출원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자동차부품(사출) 및 조립 자동차조립 경험자 우대 08~17(주 5일 근무)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24-14	월 110만원
인텍코리아	금속도장원	2명	신입	학력무관	크로메이트, 아노다이징 업무 09~18(주 6일 근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내대로 339번길 74	월 180만원
삼희식품	공장전기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식품제조공장 공장전기업무 09~18(평일)/09~15(토)(주6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579-5	월 150만원
(주)항진축산	식품생산원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소고기육포 가공 및 포장업무 09~18(평일)/09~18(토)(주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3-10	시급 4,600원
그랜드평화 (장애인만 채용)	직물재봉사	3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셔츠 제조 관련 재봉(미싱 기술자 우대) 09~18(평일)/09~13(토)(주6일)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72-2	월 120만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58-7470 ~ 7479, 7488, 7494(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50m 전방)



글. 임태형_한길안과병원 진료과장

약시, 간단한 검사로 발견 때 놓치지 말아야

아이들이 안과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시력검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력에 이상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또는 눈을 못 맞추거나 자주 인상을 써서 확인하려고 온 합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력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오기도 합니다.

유소아 시절은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이때 시력관리를 잘못하면 평생 시력이 떨어진 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약시라고 하는 데 일찍만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력은 태어나면서부터 발달합니다. 정상적으로 3개월 정도부터 눈앞에 사물을 쳐다보고 따라 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5개월 정도까지도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후 6개월까지 눈의 초점이 이상하다면 반드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개 5세 전후에 시력을 담당하는 시세포들이 성인의 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만 3세 늦어도 만 5세까지는 안과검진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시력이 발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시력을 확인하여 근시, 난시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근시, 난시, 원시와 같은 굴절이상 이 심하거나 사시가 있어서 두 눈을 함께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 선천 백내장, 녹내장, 안검하수 등의 눈 질환으로 정상적인 시각 자극이 망막에 전달되지 못할 때 시력 잘 발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약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안경을 써도 시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력이 발달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를 6세~12세 정도로 보고 있어서 이 시기에 약시를 발견하면 안경을 착용하거나 가림 치료를 시행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시를 일으킨 원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 역시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이후에 약시가 발견되면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성장판이 닫혀서 키가 잘 크지 않는 것처럼 시력 역시 이 시기가 지나면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한 조기(만 3세경)에 시력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시가 생겨서 치료 시기를 놓쳐 버리면 그 이후에는 시력을 다시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한 경우, 0.1 정도의 시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약시는 간단한 검사를 통해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싸우며 건설하자'

앨범 정리를 하다 보니 60년대 쯤 되어 보이는 간석동 사무소 사진이 있네요. '싸우며 건설하자'는 구호가 이제 없습니다. 동사무소 위치가 지금의 주원교개 쯤 되는 것 같아요. 추억을 나누고 싶어 보냅니다.

김성빈_연수구 동춘동



물고기야 미안해~

주말 월미도. 한쪽에는 갈매기들이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물고기 뉴시를 합니다. 오늘은 물고기 수난시대. 물고기야 미안해~

이은실_남동구 고잔동



물범 삼남매와 함께~

시청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스코트 귀여운 물범 삼남매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어때요~ 우리 예쁘죠?

김시연_연수구 송도동



길다, 길어~ 인천대교

팔미도로 가는 길 배에서 찍은 인천대교 사진입니다. 길고 긴 인천대교를 가까이서 보니 참 장관이네요.

한혜정_남구 용현2동



미래도시의 운치

며칠 전 출근 중 비에 젖은 센트럴파크와 송도의 마천루가 운치 있어 보여 한 컷 남겼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빗방울이 눈송이처럼 겨울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김숙연_계양구 효성1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칭찬하거나 알고 싶은 주변의 이웃을 사진과 함께 소개(원고지 1매)해 주세요.

※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2매, 장원은 4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2012년 과월호 목차

굿모닝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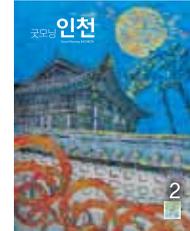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월호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2012 壬辰年	인천은 용이다
신년사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류수용
Enjoy Incheon	Winter on the Ice
Focus	2012 인천시정 키워드
신년 특집	새해 달라지는 인천생활
시정토크 앱(App)	고졸취업
그 시간이 흐른 이 공간	세계사 모자점
2014 AG	청년서포터즈 1기 활동결산
문화뉴스	'2012 신년음악회' 외
설 맞이	진통시장
책 읽는 인천	'고전특독' 외
아름다운 사람	조해리, 최불휘
시정카툰	시장과의 데이트
한방칼럼	고혈압
별난 물건, 별난 역사	볼조심 관련 물건
Civic News	시정뉴스
Council News	의정뉴스
Infobox	'방향 맞은 어린이, 청소년 다 모여라!' 외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김치칼럼	'바지락 캐러 가는 길' 외
모닝커피 한잔	한잔 양성옥 예코힐링스쿨 교장



2월호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Enjoy Incheon	신포살롱
Vision Incheon	밝다, 인천의 미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거대한 카오스 속 묘한 조화
시정토크 앱App	인천 학력향상
그 시간이 흐른 이 공간	생신카메라
땀기는 맛	이색 길거리 음식
아름다운 사람	승리아구단 감독 이도형 여성 용접사 정선영
Culture News	뮤지컬 극장애 놀자 외
만화	일주일에 하루만 쉬면, 해택 '뽕뽕'
한방칼럼	컴퓨터세대 거북이목 비생!
별난 물건, 별난 역사	금고
Civic News	죽산(竹山) 조봉암 선생 동상 건립 추진 외
Council News	인천·부산시의회 합동 워크숍 외
글로벌 인천	필드 위에 꽃 핀 우정
도전	'인천의 아들' 인천 위해 된다
Infobox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외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소통 24시	미추홀플렉스 시민상담
인천사는 이야기	칭찬합니다! 외
모닝커피 한잔	김용란 연극배우
인천풍경 플러스	저 얼음 떠다 팔링수 해 먹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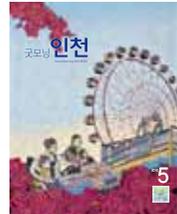
3월호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포커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reen Incheon	초록공간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한국뉴유주립대 개교
Zoom In	인천의 특목고
Incheon	3·1 독립운동과 인천
그 시간이 흐른 이공간	강화북역방
시정토크 앱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Culture News	커피콘서트 I 외
아름다운 사람 I	인천인 마무드 슈크카니
아름다운 사람 II	버려진 개들의 수호천사 정은화
별난 물건, 별난 역사	운동기구
Civic News	'쌍둥이가 복덩이예요' 외
Council News	'영성문화산업도시 인천...'토론회 외
만화	마음까지 소통합니다
한방칼럼	골반교정
Infobox	2012년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개최 외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함께 인천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사는 이야기	파이팅! 인천유나이티드 외
모닝커피 한잔	손인영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인천풍경 플러스	만선 이 손 끝에 있소이다



4월호

Communication	봄바람 타고 온, 내 고향 인천소식 외
Special	꽃놀이 명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투르 드 코리아 2012
Enjoy Incheon ①	짜장면박물관 개관
Enjoy Incheon ②	인천의 오래된 중국집
포커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개막 경기
인천나들이	과학전시관
아름다운 사람 I	경인방송 iTVFM 원가범 앵커
아름다운 사람 II	도선사 배소태
시정토크 앱	책 읽는 인천
Culture News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6회 정기연주회 외
별난 물건, 별난 역사	과학 문물
Civic News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후보도시 확정 외
Council News	학교폭력대책 시민 대토론회 개최 외
만화	금연 Halkh(할라!)
한방칼럼	비염
Infobox	경력단절, 다문화 여성 취업에 발벗고 나서 외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소통 24	미추홀플렉스 시민상담
인천사는 이야기	사람이야? 건물이야? 외
모닝커피 한잔	민선숙 인천시 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국장
인천풍경 플러스	여기보세요... 봐야 볼이란다



5월호

Communication	'희망도시 인천의 미래를 믿어' 외
Enjoy Incheon	오월 축제
가족 나들이	월미도
포커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 유치전
2014 AG·하나 되는 아시아	싱가포르
시정토크 앱	JST(제물포스마트타운)사업
Zoom In	실비 결혼식장
오월, 또 다른 풍경	골목
Expo 2012	여수세계박람회
아름다운 사람	인천 고아들의 대부 서재송 옹
Culture News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6회 정기연주회 외
별난 물건, 별난 역사	문구 이야기
Civic News	인천 '재정위기' 극복할 수 있다 외
Council News	'학생 모의의회 열어' 외
2014 AG	청년서포터즈 활동
한방칼럼	봄, 고양이처럼 게슴츠레 눈이 감기나요?
Infobox	맑고 푸른 환경시진 공모전 외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캐페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천사는 이야기	'한국 속 작은 중국으로~' 외
모닝커피 한잔	'볼꽃' 담은 인천, 뷰티도시 되기
인천풍경 플러스	미안하다, 네가 지는 줄도 몰랐다



6월호

Communication	인천시 모바일 홈페이지 정말 좋아요! 외
그 섬, 그곳에 있었네	소무의도
Cooling Incheon	친수공간
수인선 I	복선전철 우선 개통
수인선 II	소래역사관 개관
시정토크 앱	인천의료관광
Incheon Life	벼룩시장
Zoom In	부평 골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아름다운 사람	공무원문에대진 대통령상 수상자 전병호
Art Incheon	비영리 전시공간 국제교류
Culture News	미하일 프레트네프 & 러시아인 내셔널 오케스트라 외
Vision Incheon	미국 투자유치 성과
Civic News	'인천경제자유구역 FD 실적 국내 FDI 중 최고' 외
Council News	'전국최초 학교폭력예방 조례 제정' 외
Focus	재능대학교에 온 나이지리아 연수생
건강칼럼	서포는 '소식(小食)'을 좋아해
Infobox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외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Cartoon	인권상담과 인권 침해 징정 방법
인천사는 이야기	Love Incheon 외
모닝커피 한잔	평생학습은 '섬세'해야 한다.
인천풍경 플러스	갔다 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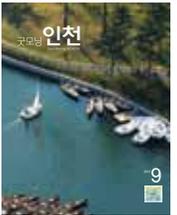
7월호

Communication	인천, 아름답고 살기 좋아! 외
여름 이야기 I	극지연구소
여름 이야기 II	백야도
	연평도
	백령도 & 대청도
	경인 아라뱃길 섬 여행
	강화도
	섬에서 캠핑
	복강스
	펜타포트락페스티벌
민선5기 제2주년 특집	시장과 대학생 기자들의 청춘간담회
Culture News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9회 정기연주회 외
아름다운 사람	사진작가 이상봉
Civic News	백령도에 현대식 병원 개원한다 외
Council News	인천시 재정난 극복 시민과대화 열려 외
Infobox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외
건강칼럼	중장년층, 심·뇌혈관질환 주의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인천사는 이야기	물으로 오를 언어의 춤 외
모닝커피 한잔	민간외교관협회 이영림회장
인천풍경 플러스	그녀에게 사랑을 허락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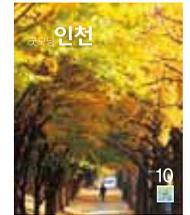
8월호

Communication	반가운 백야도 기사 외
Special	바다길라잡이 있는 무인도
Incheon Life	연안부두 해양광장
Enjoy Incheon	도심 물놀이 공간
비전인천	송도·청라 워터프런트
People	이상만 전 연평중교 교장
2014 AG·하나 되는 아시아	요르단
	인천에서 요르단 맛보기
	커피콘서트VI, 2012 SUMMER FESTIVAL
Culture News	작가 박성희
아름다운 사람	2012 런던올림픽
Fighting	"영진 실타래가 하나를 풀리고 있습니다" 외
Civic News	인천광역시의회 제2회 하반기의회 이상만 의장 외
Council News	'한시(漢詩) 수강생 모집' 외
Infobox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	인천 고용정보
리크루트	아름다운 가슴, 건강한 여성
건강칼럼	'예쁜 정원, 숨은 손길에 감사' 외
인천사는 이야기	김중현 인천국제교류센터 팀장
모닝커피 한잔	너희가 물을 아느냐
인천풍경 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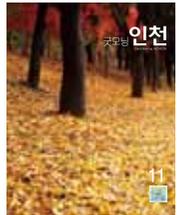
9월호

Communication	'굿모닝인천을 통한, 두 번째 여름휴가' 외
한중 수교20주년	황해국제요트대회
Special	인천의 야생화
Incheon Life	만식, 화수, 북성부두
Enjoy Incheon	MTB
바로 여기	중앙공원
비전 인천 사회적 은행	'함께하는 사람들'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평양옥
Culture News	커피콘서트, 찾아가는 공연
아름다운 사람	양곡 제작업체 대표 김경환
Civic News	'GCF 인천유치 국가적 홍보활동에 총력' 외
Council News	'김영문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의회 제1부외장' 외
정보뱅크	공중육아놀이터
Infobox	'2012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개최' 외
이달의 서평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외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건강칼럼	자외선과 눈
인천사는 이야기	'갈매기의 반란' 외
모닝커피 한잔	이희수 부개도서관 관장
인천풍경 플러스	무서워



10월호

Communication	'시정, 더 자세히 알고파' 외
GCF	What's GCF
	Why Songdo
	Echo 송도
	Compact & Smart City 송도
	I-Tower
	송도 입주 UN기군
	환경영화 '더 리플렉션'
	Welcome Letters
	명월집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이근탁
아름다운 사람	'GCF 인천유치 국가적 홍보활동에 총력' 외
Civic News	'구재용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외
Council News	'이정용 사진전 수련' 외
Infobox	'친절한 음악책' 외
이달의 서평	인천 고용정보
리크루트	눈의 중앙
건강칼럼	'마사지집이 어디요?' 외
인천사는 이야기	'커피콘서트VI' 외
Culture News	시월, 축제로 통하다
축제	서해안 인천국제교류센터
모닝커피 한잔	세상앓
인천풍경 플러스	



11월호

Communication	'(굿모닝 인천)으로 인천나들이' 외
GCF 인천 유치	우리가 해냈다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유치이미
Incheon Life	게스트하우스
가을 특집	문학관 기행
인천 씨네마	애관극장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강화 우리옥
Culture News	'커피콘서트IX' 외
아름다운 사람	페현수악으로 구두 만드는, 디자이너 최환
Civic News	'인천세계장애훈예대회 개최' 외
Council News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 외
Infobox	'고등어간학교,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외
이달의 서평	'천 번을 흔들어야 어른이 된다' 외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건강칼럼	안구 건조증
인천사는 이야기	'시원합니다' 외
전국체육대회	이제, 'Incheon'이다
모닝커피 한잔	원기범 경인방송 아나운서
인천풍경 플러스	책방, 미안해요



문화의 시계바늘이 돈다

“너, 어디 살아?” “송의동 109번지.”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주먹 석 대부터 날아왔던 시절이 있었다.

거친 동네를 풍자하던 이 우스갯 소리도 벌써 30여 년이 넘는 '전설'이 되었다. 성채처럼 생긴 전도판을 중심으로 골목 골목이 이어지고 처마가 맞닿아 내려앉은 산동네. 거친 숨 몰아쉬며 언덕을 오르내리던 송의동 109번지 쇠뿔고개(우각로) 시계가 언제부턴가 재개발 소문에 그대로 멈춰 버렸다. 흑백 사진첩이 되어 추억을 담고 있던 이곳이 요즘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쇠잔해버린 쇠뿔고개가 문화의 시계바늘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글. 사진 김민영_자유기고가





1 "어서 오세요" 연극연출가 진정하씨가 작업 중 방문객을 보고 다락방에서 손을 흔든다. 2 집보러 온 김영승 시인 3 그들은 틈틈히 짬을 내 우각로 언덕에 올라 자신들의 '작품'을 만든다. 4 소문을 듣고 문화 마을을 찾은 젊은이들과 동네 아저씨의 기념사진 한 컷 5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할머니가 해바라기를 하고 있다.



멈춰버린 승의동 109번지의 시계

얼마 전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골목으로, 몽클한 시선을 끌면서 재조명된 승의동 109번지. 긴 골목 끝에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등에 업고 잔잔히 걸어 내려오던 그 장면이 떠오른다. 노부부의 쓸쓸함을 잘 담아낸 그 골목은 사람소리보다 바람소리가 더 많았다. 노년의 쓸쓸한 뒷모습으로 표현되었지만 이 골목의 '왕년'은 사뭇 달랐다.

전도관 아랫동네로 유명했던 승의동 109번지는 조용한 동네가 아니었다. 기왓장을 올리듯 삐걱히 채운 집들이 산비탈에 줄지어 있었고 골목마다 사람들도 가득했다. 어렸던 시절, 인천에서 제일가는 '기친 동네'라 불릴 만큼 사람냄새 흥건했던 곳이다. 이웃끼리 대문을 열고 일상을 나누던 이곳이 어느 순간부터 풍선의 바람 빠지듯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곳에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그 바람은 언덕 높은 승의동 109번지를 행하게 만들었다.

원주민들은 하나 둘 비좁은 집을 비웠다. 골목길과 비탈길을 따라 빈집이 늘어났다. 사람의 발걸음을 쉬이 만날 수 없는 쓸쓸한 동네가 되었다. 어느날 재개발의 시계가 그대로 멈춰 버렸다.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마을은 급속히 침체되어 갔다. 골목은 지저분해졌고 우범지역으로 변해갔다. 우각로에 남은 원주민의 평균 연령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그러나 승의동 109번지 우각로를 지키고 있던 햇별은 변함없이 그 골목에 있었다. 그 별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언덕을 오른 이들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다. 이들은 페인트와 망치를 들고 흑백의 골목길을 알록달록 화사한 색으로 바꿨다. 햇살은 골목을 더욱 화사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골목에 망치소리, 사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 '우각로 문화마을'이라는 문패를 달았다.

'우각로 문화마을' 문패 달다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문패를 달기까지 원주민들과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빈집이지만 분명히 주인이 있는 집이죠.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심했죠. 가뜰이나 재개발이 늦어져 예민해 있는데 우리가 들어와 빈집을 고치고 '공동체' 작업장과 개인 작업장으로 사용하겠다' 하니 누가 좋아했겠어요."

1년 전의 이야기다. '우각로 문화마을'의 씨앗을 처음으로 뿌리기 시작한 조영숙 시인이 조심스럽게 사연을 전한다. '우각로 문화마

을은 남구청과 남구의제21문화분과가 협조체계를 이루며 이후의 진행을 순조롭게 했다. 결국 원주민과 집주인의 허락으로 '우각로 문화마을'은 이렇게 송의동 109번지의 일원이 되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재개발로 잠시 멈춘 시간. 문화·예술 창작과 함께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들은 문화의 시간을 돌리기로 했다.

우각로는 화장(化粧) 중

랑랑~ 딱딱~ 그들이 집을 고친다. '우각로 문화마을'에서 현재 작업 중인 가옥은 13채다. 입주자인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자비를 들여 고치는 대신 월세는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 3채는 봉로방과 도서관, 공방 등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채는 문화·예술인들 각자의 주거와 창작실로 사용된다.

요즘 그들은 '공간'이라는 '작품' 만들기에 분주하다. 허락된 공간인 빈집을 고치기 위해 틈틈이 짬을 내 분주히 송의동 109번지의 언덕을 오르내린다. 현재 연극 연출가와 연극인, 시인, 영화인 등이 등지를 만들고 있다.

기왓장이 깨지고 날아간 곳은 비닐 덮개가 씌워졌다. 답답한 다

락의 벽은 뚫어 시야를 넓히고 벽지를 바르기 전 신문지로 초벌 작업을 한다. 창문의 흔적만 남아 있는 사각의 창을 넘어 지나가는 이웃들과 미소 인사를 건넨다. 연극 연출가 진정하씨의 작업실이 하루 하루 달라지고 있다.

또 다른 집의 굳게 닫힌 문이 열린다. 방과 방 사이의 벽을 시원하게 뚫었다. 벽난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붉은 벽은 잔금으로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하다. 황토를 구해 벽에 발라 놓은 황토벽은 아직 미완성이다. 공사 중이라 어수선하지만 조금씩 완성해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연극인 손민목씨의 집은 멋스럽게 변화 중이다. 얼마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도둑들'에서 홍콩 보스의 보디가드로 출연했던 낯익은 얼굴이다. 그의 집 난로 위에선 곧 불이 보글보글 끓어 오르고 연극인들이 난로 주변에 둘러 앉아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것이다.

골목을 나선 그에게 원주민 할머니가 인사를 건네며 다가온다.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할머니집의 처마다. “우리집 처마 밑이 망가졌어. 시간나면 우리집 좀 고쳐줘요.” 그가 목장갑을 벗으며 “그러지요” 하며 시원스럽게 답한다.

그들의 입주는 원주민에게도 훈훈한 바람을 전한다. 송의동 109

번지 언덕이 분명 달라지고 있다. 이미 정리·정돈이 끝난 곳도 있다. '봉로방'이란 문패를 단 게스트하우스, 이곳 창문에서 바라본 전경은 그 어디에도 비할 곳이 없다. 빛도 바람도 거칠 것이 없다. 지하 공간은 책으로 가득 채운 도서관이다. 페인트로 알록달록해진 집들의 벽에는 지역의 스토리가 담긴 벽화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 그들의 공사는 느리지만 오늘도 계속 진행 중이다.

집 보러 왔소

'우각로 문화마을' 사무실의 문이 열린다. 인천을 대표하는 김영승 시인이다. 오랜만에 그것도 이곳에서 보게되니 더욱 반갑다. 시인은 시집 발간 틈틈이 부평과 연수동을 오가며 지역민들에게 시 쓰기를 지도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어~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곳에 어떻게 오셨어요?”, “집 보러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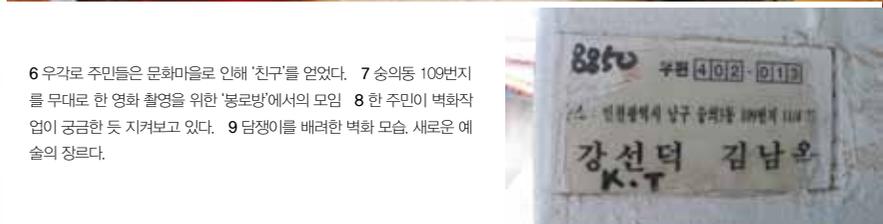
시인 특유의 잔잔하고 위트 섞인 목소리가 전해진다. '우각로 문화마을'이 벌써 문화·예술인들 사이에 입소문을 탔다. 김영승 시인은 책방과 작업실로 사용할 공간을 찾아 발걸음을 한 것이다. '우각로 문화마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조영숙 시인이 쓸 만한 집으로 안내한다.

빈집으로 나온 곳은 비탈진 언덕길에 놓인 2층집이다. 윗층은 영화인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이미 사용 중이다. 아래층의 문이 열리고 방치돼 버려진 두 칸의 방이 공개된다.

“뭘 이 정도면 됐지요, 벽지만 새로 하면 되겠어요.” 김영승 시인은 무덤덤한 듯하지만 꼼꼼히 두 칸을 오가며 공간 활용의 계획을 세운다. '우각로 문화마을' 사무실은 송의동 109번지의 북비 없는 복덕방이다.

사람이 도니 이야기가 돌고 문화가 돌기 시작했다. 남구학산문화원은 이곳을 무대로 원주민 어르신들과 단편영화를 만들고 있다.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은 전도관과 지역의 센터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배우가 된 우각로의 어르신들과 감독, 스태프들이 다음 촬영 전 도서관에 모여 앉았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을 시작으로 영화 이야기가 진행된다.

송의동 109번지의 중앙로가 된 '우각로 문화마을' 사무실 앞 골목에 빛이 들고 있다. 햇볕과 함께 찾아온 사람의 빛. 그 별과 빛이 아끼워 슬며시 대문 앞에 나와 앉은 할머니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평온하다. 공을 튕기며 한 학생이 골목길을 걷는다. 골목통으로 한 줄기 바람이 분다. 우각로 골목에 문화의 바람이 불면서 마을은 지금 회춘(回春)하고 있다.



6 우각로 주민들은 문화마을로 인해 '친구'를 얻었다. 7 송의동 109번지를 무대로 한 영화 촬영을 위한 '봉로방'에서의 모임 8 한 주민이 벽화 작업이 궁금한 듯 지켜보고 있다. 9 담쟁이를 배려한 벽화 모습. 새로운 예술의 장르다.



이 겨울 지나면, ‘봄’이 온다

글. 홍성식 _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제 곧 한 학기살이가 또 마무리된다. 이맘때 즈음 되면 웬지 초조해진다. 산적해있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겨우살이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밀린 과제와 기말시험 준비로 겨울날씨처럼 표정이 어둡다.

대학도 분주한 것은 마찬가지다. 다음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튼실한 씨를 골라내야 하는데, 그래서 입시는 여전히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대학에서는 수도권 전문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입학사정관제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로 벌써 4년째다. 성적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문제에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사교육의 용단폭격에서 공교육을 구출하고 다원화사대에 맞게 전형방법을 다양화하는 문제가 일반대학만의 전유물이 아닌 까닭이다.

사교육의 강도가 학생들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기형적인 교육구조에서 사교육의 영역에서 방치되었던 학생들에게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공정하다. 이것이 전문대학 입학사정관제가 갖는 가장 큰 의미다. 그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이를 밀착 삼아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말이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건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건 간에 이제 관건은 교육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입구관리를 출구관리보다 우선 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국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시켜 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모든 대학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쟁력 있는’이라는 수사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평생 자신들이 무엇을 무기로 삼아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자각할 수 있

게 만들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창비, 2010)에서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래서 인상 깊다. 폐족(廢族)의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을 연일 강조하는 것에서 아버지 이상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 걱정에서 가장 중심된 내용은 공부에 관한 것이었다. 두 아들의 학습정도에 따라 읽어야 할 선학(先學)들의 책 목록을 제시하고 공부방법을 전하는 것은 물론, 그 책에서 주요하게 익혀야 할 점까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학문에 관한 것만이 다는 아니었다. 어른을 공경하고 우애를 다지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가득했다. 오죽했으면 유배생활에서 풀려 몇 년간이라도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면, “너희들의 몸과 행실을 바로잡아 효제를 숭상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일에 습관이 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겠는가. 사람노릇이 먼저라는 것이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바른 인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보면서 자연스레 나는 지금 어떤가, 되돌아보게 된다. 다산은 이미 황새니 뱀새를 자인하며 익숙한 풍경으로 그냥 남아있기보다는 가랑이가 찢어지더라도 한번 따라가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신입생 선발 면접에서 만난 학생들의 의욕에 찬 눈빛에서 그리고 취업으로 초조해하는 학생들의 불안한 눈빛에서 그것을 느낀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 초입을 적시는 비가 잦다. 추위도 예년보다 빠르다고 한다. 낮은 공간으로 진입하고 또 진출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추위가 더 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멸못처럼 빈틈없이 그리고 단단하게 학생들의 옷깃을 여며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추위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말이다.



“오늘도 적자”

어느 식당의 외상 장부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직장인들은 식사 후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냥, 오늘도 적자 적어.”

그들은 또 그렇게 움츠린 채 식당 문을 나섭니다. 외상 장부에 어제도 오늘도 ‘적자, 적자...’ 하다보니 올 한해도 결국 적자(赤字)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모두들 주머니가 두둑해져 외상없는 ‘현금 박치기’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 · 사진 유동현_본지면집장